

COVER STORY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COLUMN

'음악도시 부산'과 트로트의 별들

세계의 콘서트홀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을 자랑하는
산토리 홀, 도쿄

Since 1992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6월 Vol.390

Rudolf
Buchbinder

스튜디오 지브리 OST와
Last Carnival, Long Long Ago 등 Acoustic Café 대표곡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2024. 6. 15.SAT 5: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제작 |  Silver Train

| 티켓 | VIP석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푸치니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Giacomo
Puccini



연주
KNN 방송교향악단

해설
심정옥

프로그램
토스카
서부의 아가씨
나비부인



지휘 정주영

소프라노 우수연

테너 이동명

바리톤 안세범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해운대문화회관특별기획

H-국악

해운의 풍류

(海雲) 의 풍류 (風流)




초아림 : 푸른 까마귀의 숲
6. 25.(화) 19:30

국악그룹 초아



서도밴드 콘서트 6. 29.(토) 17:00 — 서도밴드

달이 빛나는 밤에
6. 27.(목) 19:30



국악그룹 오름달

2024. 6. 25. TUE 27. THU 29. SAT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 공연단체

티켓가격 | R석 20,000원, S석(2층) 10,000원

관람제한 | 8세 이상

티켓할인 | 초·중·고, 예술인 패스권,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30%), 누림회원(40%) ※ 누림회원,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인터넷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시간을 잃고, 기억을 잃기 시작하자, 사랑이...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사업 선정작

사랑해요, 당신



2024. 6.15.(토) 2시 / 6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 |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해운대문화회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작 |  컬처마인

티켓가격 | 전석 20,000원 인터넷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티켓할인 | 초·중·고, 예술인 패스권, 단체20명이상,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30%), 누림회원(40%) 관람연령 | 8세이상 관람가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등 대표소 현장확인 후 티켓 발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퇴근길음악회, 국악힐링타임

Program

국악관현악 금잔디
가야금병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춘하추동 - 풍년노래
대금 협주곡 타래
성악과 국악관현악 세레나데 - 쉼 메들리 - 뽕은 노을
국악관현악 민요 산책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사회 노주원
가야금병창 강명옥, 김현정, 최유빈, 백도경
대금 김소희
남성4중창 홍열매, 김성민, 임성욱, 구본철

2024. 6. 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을숙도문화회관 호국보훈음악회

Remember 영웅

가수 진성



소프라노 김시하



테너 이상훈




사물놀이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지휘 홍희철

2024. 6. 20. THU 5:00PM
SAHA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사하구보훈단체협의회, Ari—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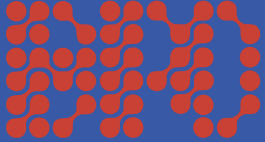
입장료 전석 초대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051)220-5811~4

61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Midsummer festival

하지축제

지휘 백승현
기타 박규희

애덤스 /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
로드리고 / 아랑훼즈 협주곡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6월호 Vol.390



14



18



24

Column	10	‘음악도시 부산’과 트로트의 별들
반갑습니다	12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차재근
세계의 콘서트홀 ⑭	14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을 자랑하는 산토리 홀, 도쿄
Cultural Issue	18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 이제 ‘남의 일’ 아니다
Cover Story	24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Preview	28	
전시 화제	34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문화가 화제	36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
Review	38	
Program Guide	40	
New Book	53	



‘음악도시 부산’과 트로트의 별들

•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가황(歌皇) 나훈아가 은퇴한다고 한다. 올해 전국 투어 공연을 끝으로 60여 년 가요인생을 정리한다는 소식이다. ‘박수칠 때’ 떠나기로 했더니 일단 박수쳐주고 싶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지금까지 800여 곡의 자작곡을 포함해 2,600여 곡을 불렀고, 200여 장의 앨범을 내 120여 곡을 히트시켰다. 나훈아의 발자취는 그대로 한국 대중음악사다.

나훈아는 부산 출생이다. 그는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나 초량초등학교와 대동중학교를 졸업했다. 그후 서울 서라벌에 고에 들어간 나훈아는 고2 때 작곡가 심형섭의 눈에 띄어 가수의 길을 걸었다.

나훈아의 라이브는 특별하다. 대부분의 콘서트는 그가 직접 기획, 연출, 진행한다. 직설적이고 친근한 입담과 구수한 부산말도 그의 매력 요소다. 나훈아는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부산은 나훈아를 끌어당기지 못했다. 부산 동구에서 나

훈아 거리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흐지부지 되었다. 나훈아의 스케일을 읽지 못한 귀결이었다.

그런 나훈아가 은퇴한다니 팬시리 아쉽고 마음이 허전하다. 가황 은퇴 전에 부산에서 ‘벼락같은 선물’ 하나쯤 챙길 수 없을까? 나훈아를 앞세운 ‘부산 트로트의 전당’ 같은 것 말이다.

나훈아 외에도 부산은 엄청난 대중가요 자원을 갖고 있다. 국민가요 ‘굳세어라 금순아’를 부른 현인에서부터 김상국, 은방울자매, 하춘화, 문주란, 정훈희, 진송남, 최백호, 한대수, 현철, 김수희, 설운도, 김건모 등 쟁쟁한 가수들이 부산의 거대한 인맥을 형성한다.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불멸의 부산노래 반열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 2PM의 우영도 부산갈매기를 보고 자랐다. 부산 수영구 출신 정서주

는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으로 ‘미스트롯3’에서 우승해 트로트계의 셋별로 떠올랐다.

부산의 대중가요(트로트) 자산은 양적으로도 풍성하다. 대중가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산 테마의 대중가요 수는 대략 2,500여 곡, 부산향 소재 노래가 800여 곡에 달한다.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이만큼의 가요 자산을 가진 곳은 없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산타루치아’, 독일 라인강에 ‘로렐라이 언덕’이 있다면, 부산엔 ‘돌아와요 부산향에’와 ‘부산갈매기’가 있다. 부산은 세계적 항구도시다. 항구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 역동성이 노래와 삶에 녹아들어 있다.

부산의 대중가요 자산이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궁해진다. 한때 부산은 한국 대중가요의 산실로서 생산의 전면(前面)을 커버한 적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요 소비도시로 전락했다. 나훈아, 조용필, 최백호 등 불세출의 스타를 배출한 도시임에도 노래만 있고 그것을 담는 그릇, 즉 지속가능한 콘텐츠(브랜드)는 없는 도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중가요의 비생산적 소비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대안은? 시민적 관심과 도시정서를 반영한 ‘대중가요 라키비움’(복합문화공간)이나 ‘트로트 전당’(전용 콘서트홀)을 짓는 방안이다.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처럼 부산판 카네기홀을 만들어 특성화·명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부산을 명실공히 ‘트로트 도시’, 나아가 음악도시로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원아시아페스티벌(BOF)과 연계 혹은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BOF는 K-POP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부산만의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매년 6월 열린다. 소비가 아닌 생산적 차원에서 트로트를 결합하면 새로운 한류의 발신지가 될 수 있다.

북항에 건립되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향후 운영과 역할에 대한 적극적 논의도 필요하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이 1,000억 원을 기부해 시작된 부산오페라하우스는 2018년 착공해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엔 1,800석 대극장과 300석 소극장, 전시실,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매머드 시설이다. 당초 2020년 개관 목표를 세웠으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3,117억 원으로 치솟았다. 준공도 2026년 말로 늦춰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한만큼 오페라시티로 나아가는 음악도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오페라하우스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합창단, 전속 오케스트라, 발레단을 포함한 단원들과 음향·조명·무대기술팀, 의상과 분장지원팀, 콘텐츠기획팀 등 예술집단 전체를 포함한다. 초대 예술감독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위촉되어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으나, 준공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오페라하우스가 음악도시 플랫폼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음악교육부터 전문 음악대학 및 대학원 설립,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갖춰가야 한다는 얘기다.

트로트 도시와 오페라시티. 부산의 실정을 고려하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트로트와 오페라는 장르가 다른만큼 향유층도 다를 것이기에 따로 추진해 나중에 통합·융합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최근 트로트 팬덤의 변화와 트로트 밈 문화의 등장,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콜라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변화 흐름도 읽고 대처해야 한다. 음악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를 만든다.

사실 나훈아, 조용필 등 트로트의 별들을 그냥 바라만 보기엔 원천 콘텐츠가 너무 아깝다. 부산시 차원에서 은퇴를 앞둔 나훈아를 만나 트로트 도시로 가는 묘책을 찾아봤으면 한다. 애항심이 남다른 나훈아 자신도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향에’는 노래 제목 자체가 부산향 스토리텔링이다. 어떤 형태든 그릇만 만들면 된다. 21세기 문화산업 전쟁시대에 이런 원석을 그냥 놔두는 것은 앓아서 뺏기는 손실이다.

‘음악도시 부산’은 절반은 상상력으로, 절반은 자산과 실행력으로 채워진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소비가 아닌 생산체제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여운이 남아 기억된다. ‘음악도시 부산’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따랐으면 한다. 어떤 의미에선 기회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목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삶의 전환’을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글로컬 거점

(재)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차재근

지난 4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차재근 대표이사는 부산문화회관 법인을 ‘삶의 전환’을 문화적으로 실현하는 글로컬 거점이자 세계적인 트렌드와 문화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연장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조직문화를 안정화하고 가치경영을 새롭게 하는 어울림의 경영으로, 전환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전환 세계의 모든 문화는 지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가진 가치와 정체성이 지역 내에만 갇혀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연결되고 관통될 때 진정한 글로컬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부산이 가진 지정학적 장소를 따져볼까요. 부산문화회관은 유엔평화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 인권, 자유, 인류애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엔평화공원이 지닌 장소성에 인류애와 평화라는 가치를 담아 유엔과의 협업을 통해 유엔평화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정학적 장소가 가진 가치가 세계 인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만나 이곳에서 새롭게 발신되는 겁니다.

수치로 증명하는 컬처노믹스 효과 인류가 가진 경제적 자본재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가 인류가 가진 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문화유산은 예술을

포함한 창조적인 문화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다른 자본재와 달리 자연을 가장 적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류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로 실현하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연장이 가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수치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연장으로서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의 전체 사업 성과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산하고, 문화적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탄소 중립 성과를 수치로 환산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효과를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변화 부산콘서트홀,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주변에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가 3이라면 기회가 7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두 시설은 클래식이나 오페라 등 서양음악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된 콘텐츠의 소비장소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실제로 예술단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부산시립예술단은 이후에도 법원에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공연장과 부산시립예술단이라는 시설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지금처럼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공연장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활동영역을 넓여주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태생의 문화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제안하고 유대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아랍권 국가와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모아 만든 서동시집오케스트라나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베네수엘라의 빈민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엘 시스템아, 그리고 독일의 소외된 청소년들과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대에 올렸던 베를린 필하모닉의 '봄의 제전' 프로젝트처럼 우리도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예술교육 시스템을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부산에 가장 아쉬운 시설을 꼽는다면 야외공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 주변의 야외공간을 조성하거나 현재 계획중인 이기대 문화예술공원과 연계하여 야외공연장이 조성된다면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축제처럼 시민들을 위한 수준높은 야외공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수월성을 전제로 하지만 대중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차별성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관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두리안하우스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문화공간인 '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방문했던 정책전문가의 입소문을 통해 그 명성이 더욱 퍼졌습니다. 저 역시 방문해서 보니 그들의 몸에 밴 친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으로서 관람객에 대한 친절은 열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재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통해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인력부터라도 선진 견학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SG의 S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해가겠습니다.”

신임 차재근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역문화진흥원 원장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참여한 중앙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가이다. 특히 예술인들과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정책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을 자랑하는 산토리 홀,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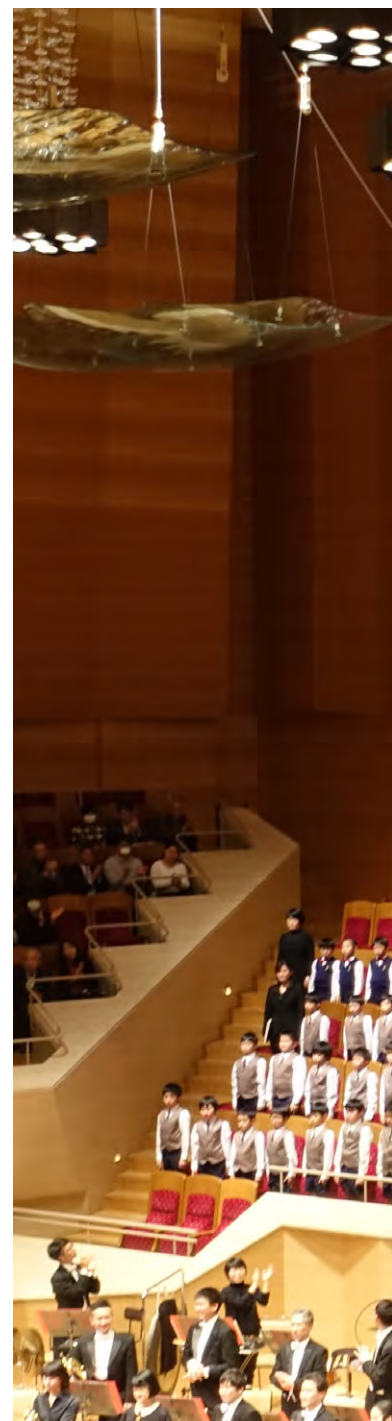
Suntory Hall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산토리 홀(Suntory Hall)은 일본 도쿄도 아카사카 중심부에 있는 콘서트홀이다. 아크 힐스(Ark Hills) 단지의 일부인 이곳은 음향 측면에서 세계 최고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은 이 홀을 '소리의 보석 상자'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도쿄 최초의 콘서트 전용 홀이기도 한 산토리 홀은 일본의 주류회사인 산토리가 위스키 생산 60주년과 산토리 맥주 생산 2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추구한다는 원대한 목표로, 1986년 10월 12일 문을 열었다. 이 홀은 당시 산토리 사장 사지 케이조(Saji Keizo)가 오랜 꿈을 실현한 공간이기도 하다. 산토리 그룹은 창업자인 토리이 신지로(Shinjiro Torii)의 '기업은 사회 환원'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 및 사회 공헌 활동에 깊이 참여해 왔다. 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 확장, 사회 환원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고, 오늘날 산토리 홀은 이러한 정신을 모든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메인 홀 앞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광장은 산토리 홀의 설계자문을 한 카라얀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했다. 그가 베를린 필하모니아 홀과 같은 좌석 형태인 빈 야드 스타일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하모니아(Philharmonie Berlin)에서는 청중이 메인 홀의 콘서트 플로어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음향적으로 우수한 빈의 뮤직페라인(Musikverein)과 같은 슈박스 형태를 통합하여 베를린 필하모니아보다 무대 측면과 뒤쪽에 음향적으로 열등한 좌석이 훨씬 적도록 절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로 설계되었다. 이는 건설 당시 베를린 필하모니아의 레이아웃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향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둘러싼 청중을 배치하는 방식을 고안한 건축가 한스 샤로운의 베를린 필하모니아가 종전의 슈박스 홀보다 음향적으로 이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는 사노 쇼이치, 야스이 아키텍츠(Yasui Architects)가, 음향 설계는 나가타 미노루(나가타 어쿠스틱스)가 담당했다.



- 1 산토리 홀의 로고 Hibiki(響)
- 2 산토리 홀의 파이프 오르간





3 산토리 홀의 창립 회장인 사치 케이조가 오르간 건반 'A'를 올려 홀을 열었다.

도쿄 최초의 전용 콘서트홀

산토리 홀은 처음 개관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이었다. 그 중 하나는 전용 콘서트홀로서 뛰어난 음향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다. 일본 최초로 빈야드 형식의 좌석배치를 채택한 콘서트홀로, 연주자와 관객이 몰입형 음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공연 전과 공연 중간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여 일본 콘서트 관람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준 점이다. 산토리 홀은 손님을 안내하는 리셉션 직원, 휴대폰 보관소, 바와 다과 라운지를 제공하여 새로운 소셜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산토리 홀은 창립 초기부터 자체적으로 디자인 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1987년부터 이어온 현대음악 축제인 '산토리 홀 여름축제'와 개관 25주년을 맞아 2011년부터 시작된 초여름 실내악 축제인 '실내악 가든'이 오늘날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산토리 홀은 2016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카네기홀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해외 음악대학과의 교류사업 등 글로벌 관점의 다양한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홀 전체를 7개월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나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후인 2012년 4월에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와 힘을 합쳐 재해 피해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엔나 필하모닉 & 산토리 음악 지원 기금'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Hibiki(響)

개관 당시부터 사용해온 산토리 홀의 로고 역시 '공명/아름다운 소리'를 의미하는 일본어 'Hibiki(響)'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히비키를 세계로'라는 메시지는 산토리 홀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일본의 많은 클래식 음악팬들이 사랑하고 키워온 '히비키'를 보다 많은 글로벌 관객들에게 전달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이다. 히비키는 모기업 산토리의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이기도 하다.

음향(Acoustics)과 무대

산토리 홀은 그 자체로 훌륭한 악기이다. 연주 중 가장 작고 아름다운 피아니시모를 홀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기 위해 빈야드 스타일의 좌석 형태를 선택했으며 바닥, 벽, 천장, 좌석의 형태와 재질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이상적인 사운드 특성을 얻기 위해 시공 과정에서 4가지 스케일의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음향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풍부하고 편안한 사운드, 두 번째는 중후한 베이스가 지원되는 안정적인 사운드, 세 번째는 선명하지만 민감한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체적인 사운드이다. 또한, 객석이 만석이 되었을 때, 홀의 잔향 시간은 중음역대에서 2.1초이다.

산토리 홀은 무대 메커니즘은 물론 음향 및 조명 제어 시스템에도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모든 종류의 오케스트라 구성에 있어 이상적인 무대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무대 위에 위치한 음향 반사판의 높이를 조정하면 최적의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채꼴 모양의 무대 바닥은 39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섹션은 1cm 단위로 무대 높이에서 1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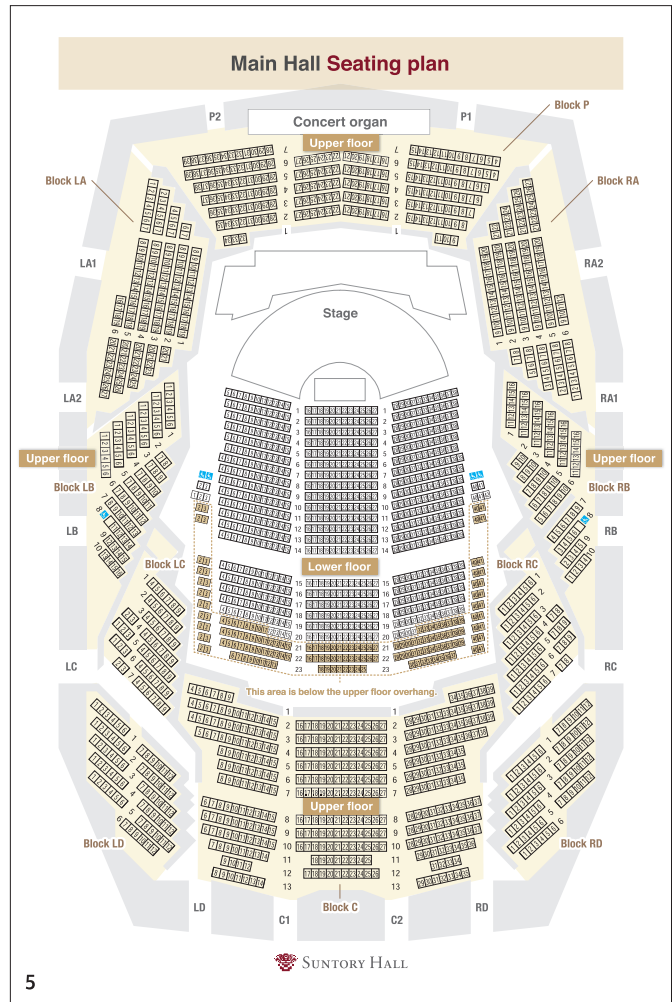
콘서트 홀의 파이프 오르간

메인 홀 무대 위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은 74개의



스톱과 5,898개의 파이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오르간 중 하나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르간 장인들이 흡의 음향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 파이프 하나하나를 손으로 제작했다. 오르간을 설치한 후 완벽한 튜닝을 위해 파이프를 추가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최신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메인 콘솔에서 연주 이외에 무대에 별도로 설치된 원격 콘솔을 이용해 조작할 수도 있다.

도쿄 내에는 산토리 홀 외에도 시부야 구에 위치한 NHK 교향악단이 상주하고 있는 NHK 홀과 분카무라(Bunkamura)의 오차드 홀, 그리고 신주쿠의 오페라 시티 콘서트 홀이 있다. 이 중 산토리 홀은 뛰어난 음향으로 세계적인 콘서트 홀의 반열에 서 있으며, 도쿄를 찾는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 유치에도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최근 엔저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으며, 또한 클래식 연주를 보기 위해 걸음하는 사례도 많다. 여행 중 산토리 홀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뛰어난 음향을 가진 콘서트홀에서의 연주는 아주 근사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음향이 좋은 공연장의 레퍼런스로 기억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4 무대를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빈야드 형태의 산토리 홀
5 빈야드 형태의 산토리 홀 좌석 배치도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 이제 ‘남의 일’ 아니다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원한 사랑의 대명사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올라간다. 그런데, 올해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있는 듀크 오브 런던 극장에서 5월 11일~8월 3일 공연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4월 초 캐스팅 공개와 함께 이슈의 중심에 섰다. 영국 연출가 제이미 로이드가 연출하는 이 작품이 로미오 역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의 스타 배우 톰 홀랜드와 함께 줄리엣 역으로 흑인 여배우 프란체스카 아메우다-리버스를 캐스팅한 것에 대해 SNS상에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줄리엣 역의 아메우다-리버스는 영국 국립청소년극단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현재는 배우 겸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캐스팅 공개 이후 SNS에 “흑인이 줄리엣을 연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더 예쁜 흑인 배우를 찾아라”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인신공격성 비난이 확산하자 제작사인 제이미 로이드 컴퍼니는 공식 SNS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어 배우 800여 명도 아메우다-리버스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 흑인 배우 캐스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해리 포터가 어른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영국 연극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는 헤르미온

느 역으로 흑인 여배우 노마 두메즈웨니를 캐스팅했다가 시끄러웠다.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삽화가 헤르미온느를 백인으로 묘사했고, 영화에서도 백인 여배우 엠마 왓슨이 연기했던 터라 수많은 팬이 흑인 헤르미온느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원작 소설 작가인 조앤 롤링이 “헤르미온느가 하얀 피부라고 단 한 번도 명시한 적이 없다. 난 흑인 헤르미온느를 사랑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었다. 또 지난해 개봉한 디즈니 <인어공주>는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의 출연으로 2019년 캐스팅 단계부터 시끄러웠다. 그리고 개봉 이후 디즈니의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따른 ‘블랙 위상’(원래 백인이었던 캐릭터를 흑인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의견과 이런 시선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한국에서는 인어공주가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못생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외모 논란이 더해졌다.

다만 구미 공연계에선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배우를 캐스팅하는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이 꾸준히 확산돼 왔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만 하더라도 이미 흑인 배우가 여러 차례 주인공을 맡은 바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영국 템바 씨어터 컴퍼니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흑인 배우 데이비드 헤어우드가 로미오 역을 맡았다. 그리고 2013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흑인 여배우 콘돌라 라샤드가 줄리엣 역으로

출연했다. 당시 로미오 역으로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올랜도 블룸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미국 유타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이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흑인 여배우가 줄리엣을 연기했다. 같은 해 영국 알메이다 씨어터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흑인 배우가 로미엣을 연기했고, 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가 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 모두 흑인 배우가 연기했다.

연극은 아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앤 줄리엣(& Juliet)>도 흑인 여배우들이 줄리엣을 연기했다. 또 5월 8일~19일 LG아트센터 서울, 23일~26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한국 관객과 만난 영국 안무가 매튜 본의 댄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흑인 줄리엣이 나왔다. 흑인 무용수 모니크 조나스가 또 다른 무용수 브라이언니 페닝턴, 한나 크레머와 번갈아 가며 줄리엣 역으로 출연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외에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이미 흑인 팬텀과 흑인 크리스틴이 등장했으며, 뮤지컬 <레미제라블> 역시 흑인 장발장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하데스타운>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유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연기한다. 연극이나 뮤지컬 외에도 세계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주역으로 출연하는 것도 이런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 덕분이다.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의 확산과 관련해 아시아계 배우들이 '화이트 워싱'(원래 동양인이었던 캐릭터를 백인이 연기하는 것)을 꾸준히 비판해 온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영

미권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배우들은 지나치게 백인 배우에 편향된 제작 시스템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영국 런던에서 공연된 연극 <죽은 사랑 속에서>는 고대 중국 배경임에도 모든 캐스트를 백인으로 채웠다가 아시아계 배우들의 시위에 직면했다. 또 <죽은 사랑 속에서> 사태 이후 영국의 현대오페라 단체인 뮤직시어터웨일스는 중국 이미지 이야기를 다룬 페테르 외트뢰시 작곡 오페라 <골든 드래곤>을 백인 성악가로만 캐스팅했다가 거센 항의에 맞닥뜨리자 공연을 취소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구미 공연계는 피부색을 보지 않고 캐스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됐다.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벌어질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분류하는데 올해 한국이 유럽과 북미 외에 처음으로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됐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배우가 무대에 서고 있다. 그동안 극 중 한국인과 구별되는 외국인 역이었지만 최근엔 한국인 배우와 마찬가지로 인종이나 국적과 상관없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뮤지컬 <레미제라블> 한국어 프로덕션에는 인도-일본계 배우 루미나(본명 나카무라 루미나)가 주역급인 에포닌 역으로 출연했으며 연극 <신파의 세기>와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에는 튀르키예 출신 배우 배톨(본명 준불 배톨)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지난 2022년 낭독공연에 이어 올해 1월 본공연이 이뤄진 연극 <안나전: Hallo 춘향>은 독일인 배우 윤안나(본명 안나 엘리자베트 릴만)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등 외국인 배우들과 함께 선보인 작품이다.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이라는 부제를 단 이 작품은 한국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외국인 배우들의 희망과 함께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그렸다. 한국에서도 이제 증가하는 외국인 배우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백인 여배우가 실제로 춘향이를 연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열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 by Johan Persson

2 연극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국내 정상급 제작진이 선사하는
모차르트 최후의 걸작 오페라

토크오페라

마술피리

W.A.Mozart Die Zauberflöte



지휘 백승현



연출 해설 이의주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음악코치 권수빈 성악덕선코치 조용훈 기술감독 박재현

무대·영상디자인 길고은 의상디자인 한승수 조명디자인 김민재

분장디자인 구유진 영상중계·제작 아트 포레스트 조연출 전하라

자막 김경희

출연

타미노 김동녕, 김준태 파파게노 시영민, 유용준 파미나 박소영, 이수정

밤의 여왕 강주희, 이에은 자라스트로 손상혁 파파게나 이유빈, 박에은

요정 김은정

2024. 7. 4. 목 ~ 7. 5. 금 10:30, 1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0,000원(정기회원 20% 할인) 예매 | www.bscc.or.kr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051)607-3113, 3115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SUN	MON	TUE	WED
<p>예매</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 챔버홀: 2월~8월 · 사랑채극장: 1월~6월</p>	<p>전시실</p> <p>제18회 대한민국풍란대전 6월 1일(토)-6월 2일(일) 부산풍란회(010-6585-1318)</p> <p>부산회화제 6월 11일(화)-6월 15일(토) 부산회화제 운영위원회(010-2870-0505)</p> <p>2024 국제현대미술 우수작가 초대전 6월 19일(수)-6월 22일(토) (사)한국현대미술협회(644-0005)</p>		
<p>2</p> <p>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맥베투 Macbettu' 17:00 중 4만원-3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p>	<p>3</p>	<p>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0:30(학생 단체관람) 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5</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0:30(학생 단체관람) 대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33회 부산무용제 19:30 중 무료/(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2-5116)</p>	<p>10</p>	<p>11</p> <p>국악에 새로움을 더하다 '풍류탱고' 19:30 중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12</p> <p>2024 제40회 부산음악 연주회 16:00 중 부산MBC(760-1125)</p>
<p>16</p> <p>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9회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18:00 중 무료/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010-8733-7438)</p>	<p>17</p>	<p>18</p> <p>부산시여성합창페스티벌 17:00 대 부산여성연합회합창단(010-4800-0001)</p>	<p>19</p> <p>◆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황수미&안종도 듀오'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KNN방송교향악단 '한국교향곡 10번' 19:30 중 5만원-3만원/KNN방송(010-5222-1111)</p>
<p>23</p> <p>한울림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 17:30 대 초대/한울림합창단(010-9044-7576) BTN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중 BTN 불교TV(010-9345-8137)</p>	<p>24</p>	<p>25</p> <p>부산하모니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19:30 대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jaejunguri@naver.com) CBS콘서트 코러스 합창 페스티벌 19:30 중 CBS콘서트 코러스(010-8448-8358)</p>	<p>26</p> <p>2024 교보노블리에 콘서트 19:30 중 클래식노블(02-721-3111)</p>
<p>30</p> <p>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현악정기연주회 17:00 중 부산대학교 음악학과(510-1747)</p>			

ED	THU	FRI	SAT
			1
			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맥베투 Macbettu' 17:00 [중] 4만원·3만원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5	6	7	8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4:00 (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4: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0:30(학생 단체관람),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33회 부산무용제 19:30 [중] 무료/(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2-5116)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11:00, 14: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33회 부산무용제 19:30 [중] 무료/(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2-5116)
12	13	14	15
콩쿠르 시상식 및 수상자 공연(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관악협회 제41회 부산창작관악축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진' 19:30 [중] 무료/부산관악협회(010-6886-5896)	짬뽕부산 제2회 정기연주회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깐뽕대부산(010-9550-4649) 부산시립예술단 다함께 행복한 음악회 '얼씨구!' 14:00 [중] 무료(사전예매 필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2024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14:00 [대] 무료/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605-5116) 경남여고 수정합창단 창단 45주년 기념발표회 15:00 [중] 경남여고 수정합창단(010-4872-9568)
19	20	21	22
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콘서트' 19:30 (사)부산문화회관(607-6000) 작곡가곡 대축제' 19:30 (사)부산문화회관(850-9568)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II'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244회 MBC 목요음악회 19:00 [중]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1회 정기연주회 '하지축제'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총무 이국희(010-9458-9258)	부산메트로폴리탄필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_음유시인 III 'All-in-One' 17:00 [대] 12만원·9만원·6만원/BMPO(070-7727-0188)
26	27	28	29
콘서트 19:00 (사)부산문화회관(452)	◆ 부산시립합창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I 11: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7회 더 부산 혼 사운드 정기연주회 '오페라! 교향곡!' 19:30 [중] 전석 1만원/더 부산 혼 사운드(010-8733-7438)	◆ 루돌프 부흐비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17:00 [대]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III_사회복지학자 이지선'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전시실</p> <p>부산문화회관이 보다 더 나은 시설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무대/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로 공연장별 휴관에 들어갑니다.</p> <p>· 챔버홀: 2월~8월 · 사랑채극장: 1월~6월</p>	<p>전시실</p> <p>(사)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전 5월 28일(화)-6월 2일(일) 전시실1-2</p> <p>미석회 회원전 6월 4일(화)-6월 9일(일) 전시실1-2</p> <p>2인 2색 작품전 6월 11일(화)-6월 16일(일) 전시실1</p>	<p>서진중 개인전 6월 18일(화)-6월 23일(일) 전시실1</p> <p>부산에빛학교 전시 6월 18일(화)-6월 21일(금) 전시실2</p> <p>동백수석회전 6월 25일(화)-6월 30일(일) 전시실1-2</p> <p>·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p>	
2	3	4	5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 10:30 소 전석 1만원/부산시립 (607-3113, 3115)</p>
9	10	11	12
		<p>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창단 18주년 기념 사랑나눔 음악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19:30 대 5만원 · 3만원 · 2만원/UKO(010-5468-4658)</p>	
16	17	18	19
<p>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 17:00 대 11만원·9만원·7만원 아트인뮤직(02-525-4420)</p> <p>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16:00 소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주)반올림(070-8612-5244)</p>		<p>공감콘서트 '새롭게, 힘차게, 미래로' 19:30 대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p>	
23	24	25	26
<p>히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4 부산양곡로 15:00 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p> <p>30</p> <p>뮤지컬 '한글용사 이야기' 11:00, 14:00 대 전석 6만6천원/DS뮤지컬컴퍼니(1577-4868)</p> <p>극단 연 제22회 정기공연 '장고개 사람들' 14:00, 17:00 소 전석 3만원/극단 연(010-2890-2955)</p>		<p>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샤콘느 어린이 오페라 '마술피리' 10:00 소 샤콘느(010-8568-0055)</p>	

WED	THU	FRI	SAT
			<p>1</p> <p>◆ 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17:00 대 전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제21회 부산국제연극제 초청공연 '인사이드(The Insider)' 17:00 소 전석 3만원/부산국제연극제(802-8003)</p>
<p>5</p> <p>3연 '교실 밖 합창여행' 예술단 공연사업팀</p>	<p>6</p> <p>2024 부산시민을 위한 나라사랑 음악회 16:00 대 무료/사상구청(310-4066), 영도문화예술단(419-5562)</p>	<p>7</p>	<p>8</p> <p>미스터트롯2 진선미 콘서트 '트롯트립' 13:00, 18:00 대 15만4천원-13만2천원-11만원 (주)밝은누리(1566-9621)</p>
12	13	14	15
		<p>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10:00(단체관람), 20:00 소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주)반올림(070-8612-5244)</p>	<p>◆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지브리 OST 17:00 대 7만7천원-5만5천원-3만3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16:00 소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주)반올림(070-8612-5244)</p>
19	20	21	22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15:00 소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6	27	28	29
	<p>◆ 부산시민회관 토크콘서트 '살롱 드 국악-이희문' 19:00 소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6천원/DS뮤지컬컴퍼니(1577-4868)</p> <p>극단 연 제22회 정기공연 '장고개 사람들' 19:00 소 전석 3만원/극단 연(010-2890-2955)</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현존하는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를 이끌고 처음 부산을 찾는다.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는 이 시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그의 피아노 연주에는 65년이 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재치와 자연스러움이 녹아있다. 작품에 대한 그의 해석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이고, 악보에 충실하면서도 자유롭고, 또한 정확하면서도 편협하지 않다. 특히 베토벤 작품에 있어서 부흐빈더의 해석은 베토벤 연주의 표본으로 여겨진다.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흐빈더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의 서로 다른 판본들을 39판이나 소장하고 있으며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의 원판과 그 사본을 포함해 악보의 초판, 원판 등 방대한 양의 악보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갔고 이런 결과로 세계 각지

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60회 이상 연주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게 됐다.

특히 2021년에는 부흐빈더의 75번째 생일을 앞두고 그가 가장 최근에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과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이 수록된 기념비적인 음반 <부흐빈더: 베토벤 에디션>을 발매하여 화제가 됐다. 또한, 2019/20 시즌 빈 무지크페라인은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흐빈더라는 한 명의 피아니스트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곡 전곡을 연주하는 유일한 협연자로 선정했다. 이 전례 없는 무대에서 부흐빈더는 안드리스 넬손스 지휘의 라이프치히 게만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빈 필하모닉, 마리스 얀손스 지휘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의 뮌헨 필하모닉,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의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와 함께했다. 모든 연주는 실황 녹음되었고, 2021년 9월



일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좌석 **VIP**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3장의 CD로 발매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음반은 예술계 정상들의 역사적인 자료인 동시에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베토벤 해석가 중 한 명인 부흐빈더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부흐빈더는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디아벨리 변주곡’ 전곡 연주를 선보였다.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더불어 서양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주곡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베토벤은 주제가 되는 왈츠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과거로부터 축적돼 온 동시대의 다양한 음악 양식들을 모방하고 변형하며 33곡의 변주곡을 완성했다. 그는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 작품 120’에 이어 레라 아우어바흐부터 브레트 딘, 호소카와 토시오, 크리스티안 요스트, 브래드 러브먼, 필립 마누리, 막스 리히터, 로디온 세드린, 요하네스 마리아 스타우드, 탄 둔, 외르크 비트만까지 다양한 시대를 대표하는 11명의 뛰어난 현대 작곡가들과 함께 베토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왈츠 테마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곡된 변주곡을 선보였다. 이 새로운 ‘디아벨리 변주곡’은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재단의 지원으로 세계 각지의 공연장 등 열한 개의 단체에게 의뢰를 받았고 부흐빈더는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초연을 마친 후 같은 작품으로 유럽, 아시아, 미국을 방문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디아벨리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부흐빈더가 1976년에 녹음했던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을 새롭게 녹음하여 2020년 3월, 새로운 디아벨리 변주곡 세계 초연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루돌프 부흐빈더와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Fabrice Umiglia

2012년 첫 내한공연 후 9차례 내한

루돌프 부흐빈더는 1951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 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입학하면서 신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입학 전부터 모차르트에 건줄 만한 천재로 알려진 부흐빈더는 빈 국립음대 역사상 최연소 합격자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부흐빈더는 10세의 나이로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피아니스트로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마쳤다. 10대 시절에 이미 모든 학업을 마친 부흐빈더는 이후 국제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실력과 명성을 쌓았는데, 1961년에는 뮌헨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트리오 부문에서 1등상을, 1965년에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1970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모차르트 해석상을 차지했다. 현재는 빈 필하모닉, 빈 음악협회, 빈 콘체르트 하우스, 빈 심포니,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명예 연주자로 있으며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로부터 명예 골든벤티를 받은 최초의 솔로이스트로 유명하다. 지난 2012년 첫 내한 이후 한국 관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해온 부흐빈더는 올해 9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특히 지난해 내한공연에서는 총 7회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이번 내한공연에서 부흐빈더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한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KKL 루체른 콘서트 시리즈와 루체른 페스티벌의 객원 앙상블로 활동하며 광대한 범위의 레퍼토리로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빈 무지크페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Fabrice Umiglia

라인 등 유럽 최정상의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지난 1956년, 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슈나이더한과 스위스 지휘자 겸 바이올리니스트 루돌프 바움가르트너에 의해 하프시코드를 갖춘 현악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창단 초기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숭고하고 따스한 스트링 사운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악단을 이끌고 있는 예술감독 다니엘 도즈는 바움가르트너를 이어 악장 또한 겸하고 있으며,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유구한 음반 역사를 자랑하는데, 1973년까지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 독점으로 음반을 발매했으며 그 이후, 데카, 유로디스크, 데논, 펜타톤, 워너 클래식을 통해 여러 음반을 출시했다.

루돌프 부흐빈더는 이번 내한공연에서 베토벤 대장정의 피날레이자 베토벤이라는 정상을 향한 끝없는 등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준다.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에 있어서 피아노가 단순히 협주악기를 넘어 오케스트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향악적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 그래서 부흐빈더는 베토벤을 ‘위대한 혁명가’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베토벤을 향한 부흐빈더의 신념과 철학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5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베토벤 본인만의 독창성과 스타일, 작품세계를 뽐내기 시작한 작품이라 평가받는 제3번과 ‘황제’라는 곡명처럼 웅장하고 당당한 제5번을 연주한다. 부흐빈더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노 협연뿐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부흐빈더만의 베토벤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OST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7만7천원,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서정적이고 따뜻한 곡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의 뉴에이지 그룹 어쿠스틱카페(Acoustic Café)가 6월 15일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어쿠스틱카페의 음악 뿐만 아니라 지브리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어쿠스틱카페’ 리더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인 츠루 노리히로와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가 음악감독과 작곡자로 참여한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의 OST를 원작 삽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오랜 파트너이자 일본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원작 삽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매력적인 스토리와 영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별을 산 날’은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만 상영되는, 국내에서는 미개봉된 애니메이션이기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별을 산 날’ OST 외에도 ‘Last Carnival’, ‘Long Long Ago’, ‘Hope for Tomorrow’ 등 어쿠스틱카페의 대표곡과 함께 ‘천공의 성 라푸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어쿠스틱카페 스타일로 편곡한 지브리 OST를 만날 수 있다.

츠루 노리히로는 지난 1989년 ‘달을 만든 남자’로 데뷔한 후 그동안 TV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음반 프로듀서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어쿠스틱카페는 1991년, 츠루 노리히로를 비롯하여 첼리스트 마에다 요시히코, 피아니스트 나카무라 유리코 3인으로 결성됐지만 츠루 노리히로를 제외하고는 고정 멤버가 없는 자유로운 그룹이 특징으로, 이름 그대로 어쿠스틱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연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특히 2003년 발표한 앨범 ‘For Your Memories’의 수록곡인 ‘Last Carnival’과 ‘Long Long Ago’로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어쿠스틱카페는 지난 2009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거의 매년 한국을 찾고 있으며, 그룹 앨범에 ‘목련화’, ‘보리밭’, ‘목포의 눈물’, ‘비목’ 등 한국가곡과 가요를 수록하는 등 한국 팬들과도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다.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종도 듀오 콘서트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계가 인정한 연주자들의 수준높은 연주를 만날 수 있는 2024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세 번째 무대가 6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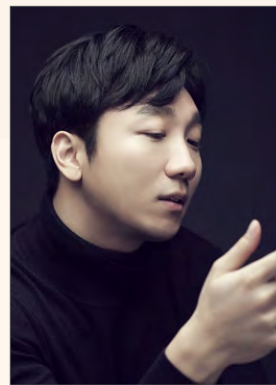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연주를 통해 세계 클래식의 최신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세 번째 시즌에서는 솔리스트들의 독주 외에도 최고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펼치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 최고 연주자들의 멋진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찬란하고 매혹적인 목소리의 소프라노 황수미와 섬세하고 열정적인 터치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 무대에 함께 선다.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2013년 아넬리제 로텐베르거 콩쿠르 우승, 2014년 펠릭스 멘델스존 바리톨디 컨서바토리 콩쿠르 1위 등 각종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연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본 오페라 극장 및 비스바덴 헤센 주립 극장, 스위스 제네바 극장, 오스트리아 테아터 안 데어 빈 등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



소프라노 황수미 © 김재원



피아노 안종도

며 오페라 무대뿐 아니라 콘서트, 가곡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주목받은 황수미는 제1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이자 하프시코디스트인 안종도는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롱 티보 크레스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 독주상, 최고 현대작품 해석상을 수상하며 유럽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2016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과 교향악축제 최초로 하프시코드를 협연한 바 있다. 안종도는 현재 한국과 독일을 넘나들며 피아니스트, 하프시코디스트, 칼럼니스트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 등 다방면에 걸쳐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여인의 일생을 주제로 한 슈만의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 전곡을 비롯하여 모차르트, 말러 베르크, 코른골트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1회 정기연주회

하지축제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낮의 길이가 일년 중 가장 길
다는 하지날, 부산시립교향
악단이 제611회 정기연주회
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백승현 부지휘자가 지휘하
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
악의 거장 존 애덤스의 ‘고
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을
첫 곡으로, 섬세한 감정표현

으로 사랑받는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협연하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그리고 공연장을 리듬의 향연으로 가득
채울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으로 관객들을 여름 음악축제의
장으로 이끈다.

첫 곡인 존 애덤스의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은 특히 국
내에서는 거의 연주된 적이 없는 작품으로, 곡 제목처럼 긴
장감 넘치는 속도로 표현된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곡은 스페인의 국민음악가 호아
킨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으로, 스페인의 옛 도시인
아랑훼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으로, 스페인의 옛 영
화와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어우러져 현재까지도 전 세계
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협연을 맡은 기타리스트 박규희는 우리 시대 최고의 기타리
스트 중 한 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이다. 국제 무대에서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알람브라 콩쿠르를 포함하여 아홉 번의 국제 콩쿠



지휘 백승현



기타 박규희 © Ho Chang

르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세
계적 권위를 지닌 벨기에 프
랭탕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는
최초의 여성 우승자이자 최
초의 아시아인 우승자로서 이
름을 올렸으며, 2012년 스페
인 알람브라 국제 기타 콩쿠
르에서는 1위와 청중상 등을
석권하며 그 부상으로 세계
적인 레이블 나소스(Naxos)

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스페인 전역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 알리칸테 음악원에서 마스터
과정 수석 졸업 후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리듬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춤의 교향곡’이라 불리며, 특히 리듬과
멜로디가 주는 즐거움이 마치 축제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정기연주회에 앞서 6월 20일 열리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
악회’서는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함께 정기연주회 협연곡인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의 리허설 과정을 보여준다.
‘미완성 음악회’는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611회 정기연주회
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협연자와 오케스트라가 앙상
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실제 연주회
와는 다른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입장료: 전석 5천 원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갈림길에 선 여자

6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극단 '옆집우주'의 신작 '갈림길에 선 여자'가 6월 2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는 2022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GWPAF) 글로벌 아티스트 쇼케이스에 선정된 후 그 해 2022 광주여성영화제 초청,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에 선정되는 등 단기간에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 모은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가상의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가 공연되기 1시간 전,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연을 앞둔 극단 옆집우주의 단원들은 뒤늦게 하나둘 극장에 도착하고 연출은 이번 공연만 대박나면 서울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며 단원들을 북돋운다. 그러나 정작 단원들은 서울로 떠날까 부산에 머물까 고민하며 저마다 혼란스러워 한다. 그 사이 배우는 중요한 소품을 잃어버리고, 지영은 깜빡거리는 조명 하나가 몹시 거슬린다. 그 때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인 '인형의 집' 주인공인 '노라'가 극장에 등장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치닫는 갈등 속에 점점 분열되어 가는 지역 청년 페미스트 극단 옆집우주, 이들은 과연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을까?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는 예술인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N잡리의 현실, 서울 중심주의, 예술계 성평등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지역 격차 등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여성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을 작품을 통해 재치 있게 풀어낸다.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우주라 내세우며 지난 2021년 창단한 극단 '옆집우주'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 스태프로 이루어진 부산의 청년극단으로, 사회에서 차별받



© 2022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all rights reserved

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시화하고, 보다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을 창작하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이번 무대의 극작과 연출은 김영화와 김염지가 맡았으며 김영화, 라소영, 엄지영, 정이나, 하주원이 배우로 출연한다.

김염지 연출가는 2019년 여성퀴어 SF연극 '코스모나프티'로 연출가로서 첫 발을 내딛은 후 이번 작품을 집필한 김영화 작가와 다수의 무대를 연출한 부산 출신의 연출가이며, 김영화 작가는 이번 작품 외에도 '언니 저 달나라로', '마른', '사랑표-좀비', '달콤한 쪽으로' 등 다수의 작품을 집필하며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12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 예매 시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시 1매 당 1천 원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예술감독,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나유선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부산시립합창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베르디 레퀴엠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사와 레퀴엠 음악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해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는 '베르디 레퀴엠'으로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린다.

레퀴엠은 가톨릭 미사에 사용되는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는 곡으로, 특히 베르디의 레퀴엠은 그가 남긴 종교음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다. 초연 당시에는 무려 110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과 120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으며, 지휘는 베르디 자신이 맡았다.

이 곡은 베르디가 존경하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 로시니와 대문호 만초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쓰인 곡이다. 모차르트, 브람스의 레퀴엠과 더불어 세계 3대 레퀴엠으로 불리며,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진노의 날', '봉헌송',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빛', '우리를 구원하소서'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작품 중 가장 먼저 완성된 제7곡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제2곡 '진노의 날'은 광고, 영화 등에 자주 사용되면서 강력한 첫 도입부와 웅장한 사운드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예술감독 공기태), 부산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소프라노 나유선,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가 출연, 관객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선사한다. 소프라노 나유선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미, 뉴잉글랜드 음악원(석사)과 일리노이 주립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교 성악과 교수,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음악대표로 있다.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는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오스트리아 GRAZ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 수십 편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테너 박승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9-2020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로 데뷔한 후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14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 2016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2018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이인선상을 수상하고 2022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Kammersänger)를 수훈했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I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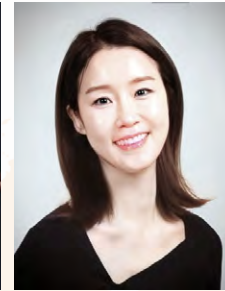
브런치 콘서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낮의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마티네 콘서트가 6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팬데믹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푸치니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로 꾸며진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원주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주영이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우수연, 테너 이동명, 바리톤 안세범이 이 관객과 만난다. 지휘자 정주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동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Salzburg Mozarteum을 졸업했다. 음악원 재학중 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한 지휘캠프에서 우수신인지휘자로 선발되어 수원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하고, 당시 참관한 일본의 명지휘자 토야마 유조(NHK교향악단 종신지휘자)에게 발탁되어 일본 센다이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정주영은 국제지휘콩쿠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러시아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와 일본 도쿄국제지휘콩쿠르 본선에 올라 러시아 St. Petersburg Capella Orchestra, 일본 Tokyo Philharmonic Orchestra를 지휘한 바 있다. 귀국 후에는 국내 유수의 교향악단을 객원지휘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 출연하는 성악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소프라노 우수연은 이화여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이태리 Porana Lirica 국제콩쿠르 모차르트 특별상, Cantalupa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제10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지휘 정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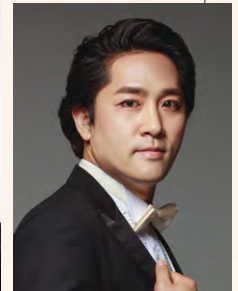
해설 심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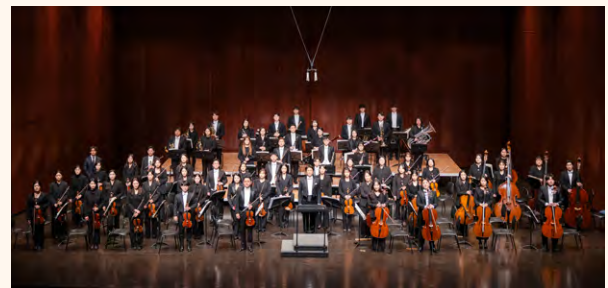
소프라노 우수연



테너 이동명



바리톤 안세범



연주 KNN방송교향악단

여자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석예술대 교수로 있는 테너 이동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이태리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06년 까를로 베르곤지가 수여하는 이태리 최고테너상을 수상했다. 바리톤 안세범은 이태리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로마 ARAM 아카데미, 이태리 Il seminario di Norm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FAUSTO RICCI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EUTERPE 국제콩쿠르 3위 수상했으며, 2011-12 이태리 Norma 뮤직 페스티벌 연주에 초청받은 실력과 성악가이다.

마티네 콘서트 두 번째 무대에서는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서곡을 시작으로 '토스카', '나비부인'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주며 전 YTN 심정옥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는다.



© Claude Monet, 'The spring', 1875, Johannesburg Art Gallery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7월 2일(화)-10월 27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꿈의 미술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플로렌스 필립스 부인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술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필립스 부인은 국제적 수준의 공공 미술관 설립의 꿈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남아공과 영국의 금융계 거물들을 설득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의회와 협상하여 미술관 설립 프로젝

트 승인을 받았다. 필립스 부인은 직접 발품을 팔아 미술관의 장소를 선정하고, 미술관 안에 들어갈 그림을 직접 구입했다. 그녀의 꿈과 결심 덕분에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1910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 근현대 미술 컬렉션이 탄생하게 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에는 현재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작품은 물론 18~19세기 영국과 유럽 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3만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양미술사를 조명할 수 있는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컬렉션인 동시에 아프리카의 근현대 명작을 소장한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



© Paul Signac, La rochelle, 1912, Johannesburg Art Gallery



© Bonnard, Pierre, Sunset in Spring, 1902, Johannesburg Art Gallery

근현대 세계 미술사를 총망라하다

(재)부산문화회관은 7월 2일부터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즈와 함께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소장품 145점을 소개하는 <서양 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아직 한국에서는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명작은 물론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낭만주의, 라파엘 전파, 나비파와 야수파, 큐비즘과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의 전반과 아프리카 미술을 소개하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로, 서양미술사 400년을 총 망라하는 방대한 작품 수와 다양성으로 전시 전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모네, 고갱, 세잔, 반 고흐, 피카소, 로댕, 마티스, 앤디 워홀 등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작가들의 원화와 판화, 조각 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아프리카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다

전시는 크게 9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부터 시작하여 인상주의 이전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인상주의, 인상주의 이후, 20세기 초 팝아트 및 현대미술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미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대별로 미술 사조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전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남아프리카 미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동양이나 아프리카계 예술은 대중에게 비교적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전시에서는 남아프리카 현지 주요 예술가들의 근현대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 도슨트를 대표하는 김찬용 도슨트가 녹음한 무료 오디오 가이드와 전시 작품 목록을 담은 자료집이 제공된다.

제20회 부산국제무용제

The 20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

6월 7일(금)-9일(일)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시민공원 야외공연장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헝가리 무파 부다페스트 '솔루스 아모르'

올해로 성년을 맞는 부산국제무용제(The 19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부산국제무용제는 매년 6월,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는 국제 무용축제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춤이 있어 더욱 특별한 도시 부산을 알렸다. 부산국제무용제는 지난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전세계 60여 개국, 약 1,000여 작품이 무대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무용축제로 성장해왔다. 부산국제무용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무용예술 향유층의 저변확대를 꾀하며, 부산지역 내 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춤 애호가층을 확대함으로써 '춤의 고장' 부산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한다. 여기에 세계적 단체를 부산 단체 및 예술가들과 연결하고 창작작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예술플랫폼으로서의 부산 도시브랜드 제고에 기여, 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한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출신 4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 40여 공연단체, 60여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개막식이 열리는 6월 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개막축하공연으로 국립무용단 '내 젊은 날의 초상', 타악그룹 타고 '더 드림 샤만: 땅의 소리'가 무대에 오르며, 특별초청공연



국립무용단 '내 젊은 날의 초상'



박은화와 현대무용단 자유 '풍요의 바람'

으로 헝가리 레시르켈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인 벤체 바지가 안무한 서커스 댄스 '솔루스 아모르'가 펼쳐진다.

특히 부산국제무용제 20주년과 한·헝가리 수교 35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솔루스 아모르(SOLUS AMOR, 오로지 사랑만이)'는 춤과 서커스, 사랑, 이 세가지 요소의 융합으로 탄생된 새로운 장르의 무대로,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서커스 공중 발레를 선보인다. '솔루스 아모르'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8일과 9일에도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해외초청작으로는 일본 오리하 가토 댄스컴퍼니 '장미랜드의 알리스', 리투아니아 오라댄스시어터 '게임 체인저', '삭제된 문', 일본 수미가다와 무용단 '경련', '이것이 왕이다', '망각', 페루댄스스쿨 솔 이 루나 '복부의 해녀', '발리차(페루민속춤)', '후아이라쉬 모데르노(페루현대민속춤)', 호주-뉴질랜드 하우스 오브 샌드 'Resisting Resistance', 인도네시아 SIPA 커뮤니티 'Bedhayan Balabak', 'Kridhaning Cupu Manik', 국내 초청작으로는 톳마루무용단 '해변의 남자', 김용걸댄스시어터 '바흐 스위트', 박은화와 현대무용단 자유 '풍요의 바람', 케이아츠 무용단 '볼레로', 와이즈발레단 '그랑파드트루와(해적)', '오로라 공주와 네나라 왕자의 춤(잠자는 숲속의 미녀)', 프로젝트 에스 '광시곡', BWC댄스컴퍼니 'SPACE', '소리 없는 우아함'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박은화와 현대무용단 자유의 '풍요의 바람'은 부산국제무용제 20주년 헌정 작품으로, 이번 부산국제무용제 공식초청공연 무대에서 처음 소개된다. 하우스 오브 샌드 컴퍼니의 'Resisting Resistance'은 지난 2023년 부산국제안무가캠

프 참가자들과 함께 제작한 안무작으로, 완성도를 높여 이번 공식무대에 다시한번 선보인다.

한편,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해외와 부산 무용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거리 공연을 실시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브라질의 그루포 타피아스와 부산의 경희댄스시어터가 장기간 온·오프라인의 제작과정을 거쳐 탄생시킨 '로타스 아포라(멀리 떠나는 길)'는 올해 'BIDF 거리홍보공연'를 통해 송도, 용두산공원, 영도 피아크, 광안리 등 부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주요 일정

- 6월 7일(금)-9일(일) 오전 11:00 송도/용두산공원, 영도 피아크, 광안리해변 BIDF 거리홍보공연
- 6월 7일(금)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국립무용단 '내 젊은 날의 초상', 타악그룹 타고 '더 드림 샤만: 땅의 소리'
- 6월 7일(금) 오후 8:00, 8일(토)-9일(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주년 기념 특별초청공연_헝가리 무파 부다페스트 '솔루스 아모르'
- 6월 8일(토)-9일(일) 오후 4: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춤 커뮤니티 '춤추는 부산'
- 6월 8일(토)-9일(일) 오후 5:3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식전 축하공연
- 6월 8일(토)-9일(일) 오후 6: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공식초청공연

이미지와 내러티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새로운 시도

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빙빙 Being-Being>



이상현 춤 비평가

창단 51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이후 '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우리를 맴도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빙빙 Being-Being>(연출/안무 이정운)'이 지난 5월 17일,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은 시립무용단이 새로운 반세기를 여는 첫 공연이라는 의미가 있고, 연임이 결정된 이정운 예술감독의 변화가 기대되는 공연이었다. <빙빙>이 이정운 감독의 이전 작품과 다른 점은 서사보다 이미지에 비중을 둔 점이다. 구성은 크게 2장으로 구성했다. 'Being 1'은 '순환, 시작과 끝,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성 춤으로 강강술래를 변용하였다. 'Being 2'는 '장부들의 삶,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삶과 떠난 자들의 숙명과 돌아갈 곳에 대한 동경을 그린다'. 남성의 춤이다. 팸플릿을 읽어보면 언뜻 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순환, 삶의 균형, 연속성, 교류, 소통, 위로, 격려, 숙명, 동경 등 익숙한 단어를 사용한 관념적인 문장이다. 춤이 현실의 재현이나 재연일 필요는 없다. 춤의 고유성이 추상성에 있어서이다. 춤의 추상성은 말-언어의 부재 때문인데,

춤도 말 아닌 동작, 움직임이 만드는 이미지라는 언어가 있다. 춤은 음악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다른 요소 없이 음악에 따라 표현만 잘해도 좋은 춤이 될 수 있는데, <빙빙>에서 음악은 춤을 이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이정운 감독 작품의 특징 중 하나다. 또 하나 특징은 '공간'이다. 무대 공간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분할과 시간성을 고려한 설정이다. 본 무대 앞 오케스트라 피트를 나누어 연주자들을 피트 중앙에 상반신이 드러날 정도의 높이로 앉혔다. 그 양쪽으로 본무대에서 에이프런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무대를 관망하거나 무대 내부 움직임을 음악적, 극적으로 보충·강화하는 곳이다. 조명은 무용수 개인을 보여주지 않고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명명의 대비로 극적 효과를 자아내기보다, 군무 전체를 역광이나 사이드 조명으로 묶어 낸다. 또한 그림자를 이용해 현실과 허상, 존재와 부재의 이중적, 중첩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1장은 푸른 색조로, 2장의 붉은 색조로 대비시킨 점도 이미지를 위한 방식이다.

<빙빙>의 춤은 여성과 남성으로 뚜렷이 나뉜다. 1장의 여성 춤은 푸른색과 보라 그리고 화이트가 주조이다. 의상에 사용한 보라색은 우아하고도 불안한 색이며, 밤의 색이기도 해서 현실적이지 않다. 보라색은 보름달을 상징하는 큰 원과 잘 어울렸다. 군무는 강강술래를 변용하였다. 강강술래는 원무(圓舞)다. 원무는 세계 각지의 민속춤에서 볼 수 있다. 원무의 기본적인 특징은 춤보다 '원'이라는 대형(隊形) 구조에 있어서 전체가 원형궤적을 벗어나지 않고 차례대로 움직인다. 강강술래의 원은 닫혀있지 않다. 열린 원은 순환만을 뜻하지 않는다. 세상이 순환한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순환을 온전하게 인식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짧다. 인간에게 세상의 근본적 순환은 추상이며,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강강술래가 원무이지만, 운율에 따라 계속 변하면서 대형을 만드는 것은 불확실한 순환을 믿고 기대기보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장에서 여성 군무의 배경은 변한다. 원과 반원, 원호는 '원' 이미지와 주제를 강조한다. 배경의 흥미로운 변화는 밝고 좁은 수직면이다. 처음은 뚜렷하고 나중 것은 처음보다 넓고 흐리게 내려와 배경의 어둠을 가른다. 마치 색면 추상화가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의 짙은 색면 사이에 좁고 밝은 선이 있는 작품을 보는 듯하다. 열리는지 닫히는지 모호한 미지의 틈은 그 너머를 알 수 없는 숭고한 영역이다. <빙빙> 배경의 밝은 수직면도 그렇다. 이렇게 여성 춤은 강강술래를 변주한 이상적이고 관념적 세계이다. 1장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2장 남성의 춤은 여성 춤에 비해 움직임과 스펙터클이 약하다. 이는 안무자의 의도이다. 이정운 감독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춤 무대는 빈약한 면이 있다"라고 말한다. 1장이 '삶의 연속성과 무한, 삶에 대한 예찬' 같은 관념의 세계라면, 2장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삶'인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현실은 관념에 비해 메마르고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 춤에서 주저하고, 반복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또한 이정운 감독의 동작을 동어반복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또한 의도이겠지만, 속내를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빙빙>은 명료하게 대조적으로 구성된 짜임새를 조명, 의상 등으로 시각화하였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모호한 무대공간은 현실성이 증발해 증성적 공간이 되었다. 나름대로 관념적, 추상적 주제 표현을 위한 장치들을 남성과 여성, 추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대비하는 춤과 버무렸다. 그렇다고 해도 추상이나 관념을 춤으로 표현할 때, 의도와 실현 사이의 개연성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쉬웠다. 안무자는 자기가 의도한 삶(Being, 혹은 존재)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춤으로 담아내려 했다. 그런데 균형과 무한 그리고 애착은 개념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들의 관계는 대비나 상쇄에 가까운데, 이를 '무용적 해석'으로 연결하려다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다. 추상적일수록 의도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작품이 방향을 잃을 확률이 적어진다. 관념의 '무용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자기 점검이 필요했다. 그 밖에 때때로 보인 신무용적 표현과 연출, 안무자가 굳이 작품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했는지 등도 고민해 볼 문제다.

<빙빙>은 이정운 감독이 앞서 보여 준 작품들과 조금 다른 결을 보여주었다. '우리를 맴도는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하려다 이미지와 내러티브 사이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시도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선불리 평가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담아 내지 못했다고 해도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중요하고 환영 받을 만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어찌 되었든지 시립무용단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의 작품을 경험하였고, 시민 관객도 마찬가지다. <빙빙>의 중요한 미덕은 이 지점에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일 시 | 6월 4일(화)~5일(수) 오전 10:30,
6일(목) 오후 2:00, 7일(금) 오전 10:30,
오후 7:30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평일 오전 공연은 단체 관람)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나해 인기스포츠 '야구'와 K-뮤지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었던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두 번째 시즌. (재) 부산문화회관과 라이브(썬)가 2년에 걸쳐 공동 기획·제작하여 2023년 7월, 첫 선을 보인 '야구왕, 마린스!'는 유소년야구단인 마린스 리를 야구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초연 당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스포츠 뮤지컬의 탄생을 알리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간판테부산 제2회 정기연주회
21인의 성악가가 부르는 **성악의 맛과 멋**

일 시 |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간판테부산 010-9550-4649



부산성악가들의 요람 '간판테부산'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21명의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클래식적 맛 '가곡과 아리아'를, 2부에서는 퍼플러뮤직의 멋 '팝과 뮤지컬'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이은미, 변향숙, 이윤정, 한인숙, 이수진, 윤비연, 이연진, 박해미, 정애린, 박은경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손혜은
- 테너/김준연, 조성흥, 박성백
- 바리톤/이승우, 최대우, 윤풍원, 최모세
- 베이스/이기백, 손상혁
- 피아노/송지은, 조은지

국악에 새로움을 더하다 **풍류탱고**

일 시 | 6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국악에 새로움을 더한 특별한 무대 '풍류탱고'. '천상의 첫대 소리' 이생강 명인의 대금 선율에 난초와 대(竹)를 연상케 하는 영남교방청춤의 명우 박경량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전통예술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무대로,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가 세계로 나아가는 K-국악의 새로움 모습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 시나위와 영남교방청춤이 어우러지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소리와 박경량의 춤이 함께하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관객과 만난다.

2024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일 시 |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6



2006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성장해온 부산교문 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어울리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있는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 연주회, 특별연주회, 이웃을 찾아가는 재능나눔 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마루극제음악제 예술감독이자 대구시립교향악단 지휘자인 백진현이 지휘하고 바리톤 시영민의 협연으로,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선보인다.

부산관악협회 제41회 부산창작관악축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진

일 시 | 6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관악협회 010-6886-5896



부산관악협회가 매년 창작관악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창작관악 축제 2024년 무대. 올해는 윤슬타악앙상블, Edis 클라리넷앙상블, 뮤직 인 색소폰 앙상블, 웨이브 인 브라스, 브라부라 색소폰 앙상블을 비롯하여 부산관악협회 BBA윈드오케스트라가 작곡가 박원일의 창작관악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 곡은 플루티스트 최혜원, 태평소주자 이윤희가 출연,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만남을 선사한다.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해설과 지휘를 맡아 창작관악의 새로운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 지휘, 해설/문화유목민 정두환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9회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만 5세 이상 입장)
문 의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8733-7438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연주자를 위해 마련한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1995년 동아윈드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2007년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에 이어 2019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다.

- 지휘/이동신(국립창원대 교수)
- 플루트/김단아 • 피아노/김지유, 김다은
- 바이올린/하지미, 박소피아, 윤재원, 김지윤, 정윤서
- 첼로/황유승 • 튜바/임장연

KNN방송교향악단 한국가곡 대축제

일 시 |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010-7990-9568



한국가곡 음악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KNN방송교향악단이 마련한 한국가곡 대축제.

프로그램에 스토리를 가미한 새로운 구성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1부 그리운 우리가곡에 이어 2부 신작가곡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가곡을 발굴, 들려준다.

특히 무대연출과 조명을 활용한 시각적인 무대와 세련된 편곡작업을 통한 한국가곡의 새로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 지휘/서희태
- 소프라노/신정순, 왕기현
- 테너/조윤환, 이태흠 • 베이스/송일도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3일 일요일 오후 5:3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한울림합창단 010-9044-7576



1978년 창단된 역사와 전통의 한울림합창단 정기공연.

2005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비롯하여 창작 연가곡 '아름다운 부산', 윤이상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한국초연 주관), 광복 60주년 기념 아시아 한마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륙에 묻힌 이름-항일독립운동음악가 한형석'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났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 및 재즈, 팝송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케냐 민요, 그리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를 들려준다.

- 지휘/김창돈 • 피아노/전해란
- 특별출연/윤슬 타악기 앙상블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2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입장)
문 의 | 총무 이국희 010-9458-9258



부산지역의 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창단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영화음악,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특별한 장르 구분 없이 관악 심포닉 밴드라는 독특한 편성으로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프로그램

El Bimbo(영화 '올리브의 목걸이'), The Exodus Song(영화 '영광의 탈출'), Ernest Gold, 아리랑 모음곡, Memory(뮤지컬 '캣츠'), 장미축전 서곡(조셉 올리바도티 곡) 등

- 지휘/정홍기
- 테너/조윤환 • 소프라노/김지혜

부산하모니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일 시 |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jaejunguri@naver.com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합창단인 부산하모니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2003년 3월 창단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미국(뉴욕 링컨 센터, 2012년), 이태리(NoviLigure 시, 2014년), 독일(베를린 필하모니홀, 2018년) 등 해외 초청연주를 통해 뛰어난 연주력을 증명해왔다.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성가합창을 대표하는 존 루터의 '글로리아'를 비롯해 작품성 높은 곡들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지휘/김창규 • 피아노/김민선
- 협연/유교 브라스앙상블
- 오르간/이순재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음유시인III 'All-in-One'

일 시 |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BMO 070-7727-0188



2009년 창단된 후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BMO) 정기연주회.

BMO는 음악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클래식을 비롯하여 영화음악, 재즈, 팝,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상임지휘자 김영수가 지휘하고 JTBC 팬텀싱어3 준우승 '라비던스' 팀의 힐링 테너 존노와 굽직한 저음이 매력인 '인간 첼로' 베이스 김바울, 제17회 DIMF 어워즈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한 대세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출연, 오페라에서부터 뮤지컬,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영수 • 테너/존노
- 뮤지컬배우/이지혜, 김바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일 시 |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이며 우리 음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의 시간과 따뜻한 위로로 전하면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지휘/이동훈(예술감독) • 사회/노주원
- 가야금병창/강명옥, 김현정, 최유빈, 백도경
- 대금/김소희
- 남성4중창/홍열매, 김성민, 임성욱, 구본철

제7회 더 부산 혼 사운드 정기연주회
오페라! 교향곡!

일 시 |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더 부산 혼 사운드 010-8733-7438,
010-9049-3990



2016년, 다소 낯선 악기인 호른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더 부산 혼 사운드의 정기연주회. 더 부산 혼 사운드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우리동네 클래식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교육 프로그램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문화예술 도시 부산의 올림을 전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른 연주자 26인이 뽐어내는 압도적인 합주로 호른의 매력을 전한다.

- 지휘/김영민 • 해설/김윤선
- 소프라노/김민성 • 테너/신대현
- 작곡/이민수 • 협연/한정원(호른)
- 합창/엄마랑 아이랑 합창단(지휘/김종석)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사회복지학자 이지선

일 시 | 6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사회복지학자 이지선이 부산을 찾았다.

지난해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모교인 이화여자 대학교에 돌아온 이지선 교수는 그 누구보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떻게 상처투성이 삶을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강연에 앞서서는 경성대학교 겸임교수이자 KNN 방송교향악단 객원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이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몬테의 '차르다시'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극단 제77회 정기공연
음악극 나혜석

일 시 | 5월 18일(토)-6월 1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평일 및 금요일 오후 2:00 단체관람)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대를 앞서간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삶과 사상이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극단의 '음악극 나혜석'은 연극과 음악, 합창, 무용, 영상상을 결합하고 대극장 관객으로 둘러싸인

원형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김지용 예술감독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백현주가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맡은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 임희준 부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업으로 보다 스펙타클한 무대를 선사한다.

미스터트롯2 진선미 콘서트
트롯트립-부산

일 시 | 6월 8일 토요일 오후 1:00, 6:00 대극장
입 장 료 | SR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제1회 대회에서 임영웅을 탄생시킨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두 번째 시즌의 우승자들이 펼치는 '트롯트립' 부산무대.

미스터트롯2의 진·선·미로 선정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은 가수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의 전국 투어무대로, 다채로운 솔로 무대와 화려한 단체 무대를 통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곡들과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세 가수가 대신 전해주는 '진선미 흥신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트롯트립 여권에 공연 관람 인증 도장을 찍는 '트롯트립 스탬프투어' 등 더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 펼쳐진다.

2024 부산시민을 위한 나라사랑
음악회

일 시 | 6월 6일 목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 문화예술회관 419-5562
사상구 문화체육과 310-4066



영도구와 사상구, 해군 작전사령부가 공동기획한 '2024 부산시민을 위한 나라사랑 음악회'.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민족, 단합, 호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도구·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와 군악대의 합동공연을 통해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송고한 뜻을 기리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기울(사상구청소년오케스트라), 김하균(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임종석(해군작전사령부군악대)
- 트럼펫/이나현 • 판소리/김아름
- 바순/이성재(상병)
- 해설/박진홍, 정승희(중사)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창단 18주년
기념 사랑나눔 음악회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일 시 | 6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UKO 010-5468-4658



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의 기념 음악회.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UKO는 특히 부산에서 최초 설립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로, 그동안 음악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비로 사용되며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을 펼쳐오고 있다.

- 지휘/김광현 • 피아노/알렉세이 레베데프
- 진행/아나운서 박은경

부산시민회관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일 시 | 6월 12일(수)-6월 16일(일) 평일 오전 10:00(단체관람),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주)반올림 070-8612-5244



학교 폭력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한 일본작가 하타사와 세이고의 동명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은 전통적인 피해자 관점이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등장하여 사건을 회피하고 은폐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부모와 침묵하는 방관자들을 통해 참된 어른의 부재를 첨예하게 보여준다.

2012년 서울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후 2022년에는 영화로 개봉되어 화제가 된 작품으로, 부산에서는 2022년 부산에서 초연된 바 있다.

- 작/하타가와 세이고
- 연출/오정국

부산시민회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국악 이희문 '내 민요는 섹시하지'**

일 시 |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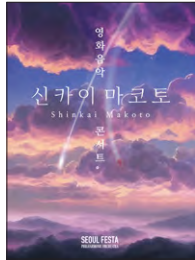
국악과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국내 최고 소리꾼 이희문이 연사로 올라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관객과 만나는 '살롱 드 국악'.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이희문은 '파격의 아이콘', '국악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경기 소리꾼으로, 2017년 한국 최초로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Tiny Desk Concert'에 초대받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무대를 뛰노는 이희문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섹시한 민요 이야기와 함께 보고 듣고 따라 할 수 있는 '합'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국악의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6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시아방해석 9만원, S석 7만원
문 의 | 아트인뮤직 02-525-442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후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음악 콘서트.

신카이 마코토는 2002년 '별의 목소리'로 주목을 받은 후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초속 5센티미터', '언어의 정원'을 연이어 발표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특히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등은 일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유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백윤학이 지휘하고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속 음악을 70인조 풀 편성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 보다 현장감 있고 풍성한 연주로 원작과는 또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일 시 |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3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
문 의 | DS뮤지컬컴퍼니 1577-4868



한글을 사랑하는 쌍둥이 훈민, 정음과 함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무대로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한글용사 아이야'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와 노래를 통해 한글을 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는 EBS의 한글 교육프로그램으로, 라이브로 즐기는 뮤지컬만의 생생한 오감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차원이 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아이야 용사들이 펼치는 파워 넘치는 액션과 화려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어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4_부산 앙코르

일 시 | 6월 23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정기회원 R석·S석 20% 할인)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듣는 지브리 영화의 감동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앙코르 무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개월만에 앙코르 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김재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WF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수석 고관수, 현재 클래식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배성우가 출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히사이시 조의 극음악을 65인조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연주로 그 감동을 재현한다.

- 지휘, 피아노/김재원
- 오보에/고관수
- 첼로/배성우

극단 연 제22회 정기공연 **장고개 사람들**

일 시 | 6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30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연 010-2890-2955



부산의 역사적 이야기를 품은 남구 우암동 '장고개'를 모티브로, 고단했던 피난시절 장고개에서 살아가던 인물들을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그린 연극 '장고개 사람들'.

이번 무대는 개인의 노력으로 현재를 바꾸기 힘든 시절, 희망이라는 것이 완연하지 않은 삶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 창작극으로, 2024 부산메세나협회 부산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선정됐다.

- 초안/이주현
- 극작/심상교
- 연출/김학준
- 출연/김학준, 길수경, 이주현, 박정연, 김상호, 안희민, 임민경, 강담서, 이현목, 김태일
- 특별출연/조달려

게네랄파우제 6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토요일 오후 8:00
 (15일 오후 7:00, 27일 오후 7:30, 29일 오후 5: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6월 무대.

1일(토) 오후 8:00 Music Producer Series 2 'Stevie Wonder'



흑인음악을 대표하는 가수가자 프로듀서인 스티비 윈더의 이야기를 강해진 퀸텟의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스티비 윈더의 음악을 통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 보컬/정세미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혜인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7일(금) 오후 8:00 Nice Swing!



기분이 좋아지는 스윙 리듬 위에 펼쳐지는 정경수 quartet의 아름다운 재즈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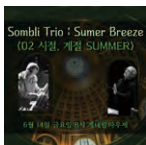
- 피아노/정경수
- 기타/김경모
- 베이스/신명준 • 드럼/황준혁

8일(토) 오후 8:00 이달현 재즈트리오 with 재즈 피아니스트 조수임



볼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시간을 연주하는 부산의 불세출 드러머 윤혁성, 화려하고 현란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베이스리스트 박지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조수임과 함께하는 재즈음악의 향연.

14일(금) 오후 8:00 <02 시절, 계절 SUMMER> Sombli Trio : Summer Breeze



클로드 볼링, 존 루터 등 클래식 작품을 재즈의 화법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을 모아 솜블리트리오만의 색깔로 들려주는 무대로, 초여름 청량하고 시원한 무대를 선사한다.

- 클라리넷, 콘서트가이드/유지훈
- 피아노/이혜경 • 비올라/김가민
- 드럼/성형원

15일(토) 오후 7:00 You go to my head



감성 보컬리스트 최은아가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감동적인 재즈 공연. 스탠다드 재즈를 최은아만의 매력적인 보컬로 새롭게 감상할 수 있다.

- 보컬/최은아 • 피아노/최은정
- 베이스/강성민

21일(금) 오후 8:00 Oldies but Goodies



보컬 서민진, 기타리스트 김경모, 베이스리스트 신세영, 드러머 피오트르 파블락(Piotr Pawlak)이 오래된, 그러나 낯익은 것들의 좋음을 음악

으로 들려준다.

27일(목) 오후 7:30 정혜민·강대현 듀오연주회



더블베이스리스트 정혜민, 피아니스트 강대현이 19세기 낭만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쿠세비초키/더블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작품 3

쇼팽/에튀드 작품 25 제1번

쇼팽/발라드 제3번 작품 47

보테시니/더블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제2번

28일(금) 오후 8:00 도담양상블과 함께 하는 지브리의 안녕, 봄!



도담양상블과 함께하는 봄날의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 작, 편곡/강현민
- 피아노/손안나
- 첼로/정혜주

- 플루트/조다운 • 바이올린/김민하
- 클라리넷/강철주

29일(토) 오후 5:00 The Quattro Quartet 제5회 정기연주회



2019년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더 콰트로 콰르텟(The Quattro Quartet)의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

더 콰트로 콰르텟은 그동안 정통클래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음색과 풍부한 사운드를 지향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피아졸라/탱고발레, 아디오스 노니노, 천사의 주음 하이든/현악4중주 제61번 라단조

- 바이올린/이리나, 김상희
- 비올라/조진영 • 첼로/정서은

2024년 클래식 파크콘서트

일 시 | 6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입 장 료 | 무료(우천시 백스코 오디오arium)
 문 의 | 부산시 문화시설개관준비과 888-5726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2024년 클래식 파크 콘서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지휘로, 첫날인 1일에는 첼리스트 한재민과 KBS교향악단의 무대에 이어, 2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성악가들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하이라이트 무대를 선보인다.

1일 KBS교향악단

- 지휘/정명훈 • 첼로/한지민
- 사회/김지현(TBN 아나운서)

2일 부산시립교향악단

- 지휘/정명훈 • 소프라노/김순영
- 테너/최원희 • 바리톤/양준모
- 합창/메가시티콰이어 • 사회/김석훈(배우)

초록새싹음악회

IPB초록우산 기부음악회

일 시 | 6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ticket.interpark.com 예매)
 문 의 | IPB 070-8018-8303



2012년 창단 후 약장과 지휘자를 두지 않고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리더를 초청, 객원악장 체제를 고수해온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IPB)의 기부 음악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을 초청,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을, 초록우산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흥렬의 나레이션으로 생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무대로, 공연 수익금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된다.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울속도 예술공감 6월 무대.

4일(제42회) 씬남쌈너



부산, 경남의 청년 음악에 솔단체인 하랑의 무대. 소프라노 정수정, 강수진, 테너 박성백, 바리톤 최모세, 피아노 권수빈으로 구성된 하랑은 이번 무대에서 초여름을 맞아 'Summer+남, Summer+여'라는 타이틀로, '쌈'을 타는 남녀의 설렘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노래들로 무대를 꾸민다. 팀명인 '하랑'은 '하늘처럼 높아지다', '함께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겸손하게 성장하여 날아오르겠다는 포부로 붙인 이름이다.

11일(제43회) Piano와 함께 놀까?
 2020년 창단 후 성악, 기악, 샌드아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해온 문화예술 어깨동무의 무대.

1Piano, 4Hands, 6Hands, 8Hands 등 피아노라는 악기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의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지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으로 클래식에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 피아노/이화영선, 안선애, 류승은, 김은경

18일(제44회) 테너 이창원의 모노음악극 '마중'
 성악가가 직접 연기하고 노래하는 새로운 형식의 1인 음악극 '마중'. 한국가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악곡을 들려주고 스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 감동의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이창원이 직접 연출,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이영희가 연주한다.

25일(제45회) 아트콘서트 '꽃 피우다'
 예술을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화와 클래식음악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La Muse의 아트콘서트. La Muse는 아트콘서트를 통해 그림과 음악의 완벽한 교감을 보여주는 팀으로, 플루티스트 황미리, 첼리스트 김기도, 피아니스트 정아름, 도슨트 이주희로 구성되어 있다.

6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마다 펼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6월 무대.

5일(제853회) Romanticism of R.Schumann
 완성도 높은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책임을 다해온 (사) 더 솔로이스츠의 무대.

12일(제854회) 황미리&고충진 듀오 콘서트



플루트와 기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성적이면서도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스토리와 함께 풀어주는 황미리&고충진 듀오 콘서트. 플루티스트 황미리,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의 연주

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플루트의 음색에 잔잔하고 화려한 기타의 선율을 더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정성흡 • 바이올린/김준영, 나승준

- 비올라/임정은 첼로/조명환

19일(제855회) 5th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창작 뮤직스토리 콘서트 'Music Forest'



국내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를 소개하고 무지개 거울속 세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감성과 색채로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창작 뮤직스토리 콘서트 'Music Forest'.

- 피아노/금찬이 • 바이올린/이영주
- 첼로/정서은

26일(제856회) 노블목관오중주 창단연주회 '북유럽에서 온 편지'



노블목관오중주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토 모르텐스, 오르겐 예르실드, 카를 닐센 등 북유럽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신승민
- 오보에/강석연
- 클라리넷/강철주 • 바순/김숙연
- 호른/강민주

제94회 울속도 명품콘서트 부산지휘자합창단 모차르트 레퀴엠

일 시 | 6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울속도 명품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휘자합창단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려준다.

부산지휘자합창단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김강규와 작곡가 백현주가 뜻을 모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 지휘자들과 솔리스트를 중심으로 결성한 합창단으로, 다양한 창작합창작품들을 연주하며 국내 합창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백현주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제7회 꼬꼬마 음악회 쿵짝푹짝 클래식 음악 선물

일 시 | 6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평소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해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특별히 마련한 제7회 꼬꼬마 음악회.

홍성택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소연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애니메이션 OST, 동요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MBC 아나운서 강민경이 꼬꼬마언니로 출연, 친근한 진행으로 어린이 관객들을 음악세계로 이끈다.

- 단장/김종천 • 지휘/홍성택
- 소프라노/김소연 • 진행/강민경

심정운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지클레프 02-515-5123



독일의 일간지 Dresdner Neueste Nachrichten 으로부터 '낭만적 음향을 마주한 오롯이 만끽할 만한 빛나는 기예'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심정운 독주회.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 MUK(前 Konservatorium der Stadt Wien)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심정운은 오스트리아 High Virtuosity 오디션에서 발탁되어 세계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빈 무직페어라인(Wien Musikverein)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세계 유수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 독주회 및 실내악, 협연무대를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父子의 바로크 음악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으로 낭만주의 클래식스의 정수를 선사한다.

6월 스페이스옴 음악회

일 시 | 14일(금), 21일(금), 27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옴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옴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옴의 6월 무대.

14일(제545회) 양상블 원더의 'Wonder-full 원더-풀'



다채로운 음악적 스타일과 풍부한 음색의 목소리를 지닌 베이스바리톤 박순기를 중심으로 테너 김준태, 소프라노 박나래, 강주희, 피아니스트 신세라로 구성된 성악 중창팀 양상블 원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4인 4색의 풍부한 음색과 다채롭고 우아한 하모니를 바탕으로 성악 중창의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21일(제546회) 프라임 앙상블 한-중 교류 음악회 '낭만에 대하여'

피아니스트 김소원을 대표로 소프라노 김정선, 바

이올리니스트 자오 티안, 플루티스트 정아름, 피아니스트 강대현으로 구성된 프라임 앙상블의 무대.
 • 게스트/하예림(비올라), 김경수(첼로)

27일(제547회) 이두환 피아노 독주회



연세대학교 피아노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Steinway

Förderpreis 콩쿠르 1위, 독일 뮌스터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수상한 피아니스트 이두환 독주회. 이두환은 이탈리아 Lucca Festival 초청독주회, 독일 Steinway Galerie 초청독주회, 서울 예술의전당 귀국독주회, 오스트리아 Clavicologn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참가 및 Diploma 획득 등 그동안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작품 27 '월광'
 슈만/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 18
 리스트/발라드 제2번 나단조S. 171
 브람스/4개의 소품 작품 119

2024 도노앙상블 콘서트 세대와 세대를 잇는 콘서트 BRIDGE

일 시 |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도노앙상블 010-6727-4957



힙(HIP)한 첼리스트들이 모여 구성된 도노앙상블의 무대. 이태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도노앙상블은 그동안 각양각색의 울림으로 더욱 다양하고 다채로운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행복 가득한 음악을 선물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첼로 네 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든든한 다리(BRIDGE)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캐논 재즈 버전(이희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My way(프랭크 시나트라), 아리랑(노부스 콰르텟 버전), You've Got a Friend in Me(영화 '토이스토리' 중) 등 수곡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일 시 |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동화 '마술피리' 이야기.

모차르트에게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마술피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울렐레를 가진 '모짜렐라'라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짜렐라가 소중한 우울렐레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렐레를 찾아 밤의 여왕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랜드오페라단과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어린이 관객들을 위해 제작한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의 유명 오페라 '마술피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작품으로, 어린이 관객들이 쉽게 클래식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출연/김홍부, 김여은, 조철희, 한경성, 김준동, 김재선 외 앙상블 단원

JYM Trio 세번째 연주회

일 시 |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박주용 010-7757-4307



수십 년의 기타 연주 경력을 지닌 아마추어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구성된 JYM Trio

의 무대.

지난 2019년 결성된 JYM Trio는 그동안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비롯하여 팝송, 영화음악, 가요 등 다양한 곡을 기타 3중주로 편곡,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 3중주 외에도 독주 및 플루티스트 권나영과 함께하는 협연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기타선율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팀명인 'JYM'은 멤버들의 닉네임인 주주(박주용), 윤정아와 만이(황성만)의 영문 이니셜 J, Y, M에서 가져왔다.

- 협연/플루티스트 권나영

기타공연장

제65회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협주곡의밤

일 시 |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UKO 010-4125-4335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사랑 나눔을 펼쳐온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9명의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백승현
- 플루트/최윤서, 염지아, 류마린
- 바이올린/이하린, 김효연
- 첼로/김찬호
- 마림바/유희원
- 팀파니/최예나, 이태휘

클래식과 떠나는 음악여행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오페라테 II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예술과 오페라가 결합된 예술융합 공연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오페라테' 두 번째 시즌.

2022년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화가를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유럽 여행을 주제로 음악과 더불어 도시의 역사기행을 가져오고 있다.

6월에는 투우와 플라멩고로 유명한 스페인 남부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 소프라노/강주희
- 메조소프라노/신성희
- 테너/김동녘 • 바리톤/최모세
- 피아노/오채영

소프라노 정혜리와 함께하는 아트 콘서트

일 시 |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정혜리 010-9281-2662



화려한 기교와 따뜻하고 깊은 음색을 가진 소프라노 정혜리와 함께하는 아트 콘서트.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로, 사랑을 주제로 한 클라라 슈만, 로날드, 드뷔시, 포레의 다양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며, 연주곡과 관련된 명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아트 디렉터 정인지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소프라노 정혜리는 현재 부산성악가협회, 벨리시미 성악연구회, 성악아카데미, 세계음악연구회, 한국가곡연구회, 토스티 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민유솜 • 테너/성민기
- 기타/김경태 • 아트 디렉터/정인지

울속도문화회관 호국보훈음악회 Remember 영웅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호국보훈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로 보훈가족들을 초청,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 회동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시하, 테너 이상훈, 연희퍼포머그룹 처맛과 가수 진성이 특별 출연한다.

- 지휘/ 홍희철

MZ오페라단과 함께하는 K-오페라 춘향전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MZ오페라단 010-9582-3899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해학이 담긴 오페라 '춘향전'을 서양오페라 형식이 아닌 한국적인 형식의 오페라로 다시 재해석하여 선보이는 무대. 현재제의 오페라 '춘향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 잘 알려진 '춘향전'을 오페라로 제작한 무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로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민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무대와 세계적 수준의 성악가들이 함께 하며 한 폭의 그림 같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배수진
- 출연/배수진, 윤석, 이기백, 강희영, 한우인, 이은정, 이성원, 김준하, 박진현
- 연주/MZ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앙상블
- 합창/MZ합창단 • 장구/신성욱

열두번째 부르는 문동환 독창회 정년 기념 음악회(1992~2024.6)

일 시 |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아모스 아트홀
 문 의 | 문동환 010-4628-3098



매력적인 음색과 중후한 중저음의 철학적 감성을 가진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특히 이번 무대는 6월, 부산시립합창단 퇴임을 앞두고 마련하는 정년 기념음악회로,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한국 가곡과 빈에서 공부했던 독일 가곡을 선보인다.

지난 1992년 부산시립합창단에 입단한 후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문동환은 특히 오순도순 우리가곡연구회를 창단, 우리가곡 연구와 보급을 위해 매진해오고 있으며,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도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 피아노/강미 • 바이올린/권주연

2024 영화의전당 가곡 페스티벌 노래의 날개 위에

일 시 | 6월 21일-22일 금-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가곡부터 세계 명 가곡까지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의 수준높은 연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김희정
- 지휘/장윤성(21일),

서희태(22일)

- 해설/장일범(21일·22일), 조현주(21일)
- 연주/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김희정·박미자·김순영(21일)
최정원·이소연·이해원(22일)
- 메조소프라노/이아경(21일), 추희명(22일)
- 테너/이동명(21일), 하만택(22일)
- 바리톤/이응광(21일), 고성현(22일)
- 특별출연/엔젤피소에술단, 부산코러스합창단

한국창작음악의 세계화 프로젝트 실내악 작품집 발간기념 시와 아가 <여화동승>

일 시 |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글로벌예술원 010-3860-4770



우리의 정서를 세계 보편적인 서양 악기로 담아내는 작곡가 신영순의 창작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작곡가 신영순은 우리음악의 토대 위에 서양음악을 재해석해 온 예술가로, 대한민국작곡상, 동아콩쿠르 작곡상 부산음악상, 부산예술상을 수상하고 국가상훈편찬위원회 '현대사의 주역들' 인물편에 수록된 바 있다.

2024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인으로서 선정된 신영순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창작음악의 세계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실내악 작품집 '시와 아가 <여화동승>' 발간 기념무대를 연다.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임충진
- 피아노/김미현
- 바이올린/백사론
- 첼로/정서은
- 잉글리쉬 혼/박종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콘서트 자포리자 필하모니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

일 시 |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째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

1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필하모니는 지난

2003년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5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50여 차례 국내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자포리자 필하모니 유니온 챔버 오케스트라는 자포리자 필하모니의 수석연주자들로 구성된 최정예 악단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포로지에 글린카 필하모니 지휘자로 활동중인 김현국의 지휘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바리톤/이태영
- 바이올린/조혜운

아티스트 그룹 세컨발코니 콘서트 봄 지나 여름, 세컨발코니에서

일 시 |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티스트 그룹 세컨발코니
010-8383-2479, 010-2906-3302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팝,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아티스트 그룹 세컨발코니의 무대.

그동안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연컨텐츠를 연구, 개발해온 세컨발코니는 이번 무대에서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중창팀 '블루마린'의 특별출연으로, 봄과 여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개화(Lucy), 산책(백예린), 밤양갱(비비), 여름 안에서(듀스), 제주도의 푸른 밤(태연) 등 수록
- 음악감독/김인애
 - 바이올린/우소라

더날개 오케스트라 여름향기

일 시 |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더날개 오케스트라 010-2323-6589



부산, 대구, 창원 등 경상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활동의 장을 열어주고자 2016년 창단한 부산 유일의 부산발달장애오케스트라 '더날개'의 무대.

'더날개'는 정기적으로 부산지역 전문음악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1:1 음악교육과 멘토링 지원을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역량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감사함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소양보육원의 소양오케스트라와 금관양상블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 음악감독, 바이올린/백재진
- 지휘/윤상운
- 바리톤/김경한
- 소프라노/노서운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콘서트 피아노의 회상

일 시 |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지난 2012년 첫 발을 내딛은 후 금정문화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11시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ARD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을 비롯하여 독일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죄르지 에네스크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 '월광'과 슈만의 '아라베스크',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리스트의 피아니즘이 만난 '돈 주앙의 회상'을 들려준다.

손정범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뮌헨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다. 해설은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가 맡아 그만의 맛깔스러운 해설을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라디안테 뮤지컬 갈라쇼

일 시 |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 공연 onStage.

6월 무대에서는 조웅, 김솔립, 심동성, 서강준, 이경민, 차경희 등 지역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라디

안테의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스페인어로 '빛나는'이라는 뜻을 지닌 '라디안테(Radiante)'는 반짝 반짝 빛나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올숙업, 알라딘, 겨울왕국, 모아나,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등 누구나 아는 유명 뮤지컬의 넘버와 안무가 어우러지는 무대 연출로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공연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서프라이즈 마술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비르투오조 앙상블 2024 정기연주회
로맨틱 피아니스트의 실내악 세계

일 시 |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 앙상블 010-8325-3588



1995년 동대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비르투오조 앙상블 2024 정기연주회.

기존 멤버들을 비롯하여 중견 연주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은 연주인으로 구성된 비르투오조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그리고, 쇼팽,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저평가된 실내악 작품을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다.

- 바이올린/백재진, 김도경, 조무중, 이현우
- 비올라/박지수
- 첼로/조명환, 이희수
- 클라리넷/백동훈
- 피아노/서혜리, 정서미, 이윤지

2024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멜로 영화 음악, 사랑의 색깔들

일 시 |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올해 영화음악콘서트에서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로 한국영화음악을 발전시킨 한국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가 호스트로 참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들을 만나다. 6월에는 '멜로 영화 음악, 사랑의 색깔들'이라는 타이틀로, 영화음악가 조성우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작품 속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OST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전한다.

- 연주/코리아 필름 체임버 페스티벌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그곳에서 널 만난건 우연일까

일 시 | 6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소개하는 지브리 음악의 세계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6월 무대.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소리모아앙상블 단원 및 악장이자 여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부대표로 있는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꿈꾸는 요리사'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이 우리 귀에 친숙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와 영화음악 수록곡,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첼로/이명로 • 피아노/박민희
- 플루트/신혜원 • 아코디언/심성훈

김지현 가야금 독주회
知絃 season3

일 시 |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지현의 가야금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 국악의 1세대 작곡가인 이해식,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이해식/12현가야금 독주곡 '흙담'
- 이해식/25현가야금 독주곡 '나위사위'
- 이성천/12현가야금 독주곡 '놀이타'
- 이성천/21현가야금 독주곡 '대지의노래'
- 장구/박재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연극 편의점 진상들

일 시 | 3월 14일(목)-7월 21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주)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극 중 주인공이 대신 속 시원하게 맞받아치며 웃음과 공감을 주는 '편의점 진상들'. 주인공 상식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여 가족들 눈치보기 바쁜 취업 준비생이다. 담뱃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편의점 알바, 바쁘고 정신 없는 편의점에서 고군분투하던 중 상식의 눈에 들어온 로또 1등 중이. 로또 인생 한방을 꿈꾸는 상식 앞에 멘탈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진상들이 나타나며 K손님과 맞선 로또 사수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격공할 수 있는 인생 실전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기타공연장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일 시 | 3월 28일(목)-7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5/7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본격 빙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연애 고자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엔 알고 보니 귀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여자와 다른 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리고 이승을 떠돌며 버킷리스트를 채워가고 있는 귀신, 한 지붕 두 사람과 한 귀신이 펼치는 버라이어티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진다.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튜디오셀러 연극으로, 이번엔 센텀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연극은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드라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가족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감냥 편의점을 한하게 밝혀라

일 시 | 6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예매시 할인)
문 의 | ㈜엔투게터 070-4108-9999
1544-1555



제24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흥민정 작가의 '고양이 해결사 감냥'을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제1권 '아파트의 평화를 지켜라'를 시작으로 현재 6권까지 출간된 '고양이 해결사 감냥' 시리즈는 누적 70만부 판매를 기록하여 어린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인 '편의점을 한하게 밝혀라'는 시리즈 5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귀여운 만능 해결사 감냥이의 활약상이 펼쳐진다.

연극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팬터마임 지니스토리

일 시 | 6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06년, 2009년 부산국제연극제, 2008 안산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 전주국제마임축제 등 전국 유수의 공연 축제에서 그 가능성과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고 2009 세계 델픽 대회에서 마임 부문 동메달을 수상한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지니스토리'.

여러 개의 단편 속에 시공을 초월한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지니스토리'는 극단세진이 지난 20여 년간 창작한 마임 단편 중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만을 모은 유니버스 마임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관객 참여를 이끌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극단새벽 신작 단막 모음뮤지컬 2024 우리시대의 삽화

일 시 | 6월 13일(목)-7월 27일(토) 매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단체 10명 이상 2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극단새벽이 새롭게 창작한 단막극을 선보이는 '2024 우리시대의 삽화'.

특히 어제와 오늘의 시선이 이어지는 기획공연으로, 2024년 무대에서는 취업준비생 커플의 웃픈 현실을 그린 '포포랜드(전상미 작)',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의 차이를 그린 '출근길(정선욱 작)', 통쾌하면서도 아릿한 세 여성의 뒷담화를 그린 '뒷담삼중주(변현주 작)', 오래된 아파트 상가 슈퍼주인 박씨의 어느 하루를 그린 '동구 밖 미니슈퍼(이현식 작)' 등 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연출/이성민

박경량류 춤 구름 위에 보내는 꽃편지

일 시 | 6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박경량류 영남교방청춤 보존협회
010-7314-0260, 010-9991-0118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춤으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며 영남교방청춤의 명인으로 자리매김한 명무(名舞) 박경량의 춤 '구름 위에 보내는 꽃편지'.

이번 무대는 박경량류 영남교방청춤 연구·보존·계승학회 백재화 학회장의 해설로 진행되며, 1부 '추억'에서는 박경량류 영남교방청춤 보존협회 최은숙 총협회장과 경남보존협회 이명옥 회장, 그리고 부산보존회 이정실 회장을 비롯한 한금숙, 최복순, 류영자, 백연화, 이다영 등 부산보존회 회원, 부산 사하구 지회장 김소영 등 회원들이 출연, 함께 나누며 고마웠던 마음을 꽃편지로 전한다. 2부 '회향'에서는 2023년 국악대상 수상자인 'The 광대'가 특별 출연, 박경량의 춤과 더불어 신명나는 풍류놀음을 선사한다.

해설과 체험이 있는
뽀띠발레 갈라콘서트

일 시 | 6월 8일 토요일 오후 1:00
영도문화예술회관 학여울마당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대중들이 클래식 발레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동화 속 발레여행'으로 제작된 부산발레시어터의 '뽀띠발레 갈라콘서트'.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클래식 발레공연을 친숙한 동화 이야기로 접근하며, '발레체험'과 '발레 알아보기'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이번 공연은 영도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인 학여울마당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우천시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열홀에서 펼쳐진다.

SG워너비 콘서트 우리의 노래 2024

일 시 |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백스코 제1전시장 1홀
입 장 료 | R석 16만5천원, S석 15만4천원
A석 14만3천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더 클래식 30주년 콘서트 1994

일 시 | 6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1층 11만원, 2층 9만원
문 의 | ㈜에음컬처엔터테인먼트 010-4216-8781

장기하 소극장 투어 나란히 나란히

일 시 | 6월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6:00
전람회의 그림
입 장 료 | 전석 8만8천원
문 의 |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1544-1555

2024 댄스 하이라이트 페스타

일 시 |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한 무대에서 만나기 어려운 장르별 주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4 댄스 하이라이트 페스타.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인 박종석과 심현희의 낭만발레 대표작 '지젤' 중 '파드되'에 이어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몸과 춤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다콘서트', 그리고 2015년 댄싱9의 우승자 김철진의 솔로무대 '이거 말해도 되려나'가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단체 LDPxKARTS의 'No Comment'와 에스디코의 '판(板)-빈 공간의 몸', 그리고 모헤르댄스컴퍼니의 'Home Within Home', 토틀무용단의 '해변의 남자' 등 어느 한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작품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6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7일(금), 21일(금)
오후 2:00, 30일(목), 27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00 유령 미지의 영화사
• 강사/허정식(영화학사)
7일(금), 21일(금)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10일(월) 오후 7:00 토크 콘서트 '한자 사고학'
• 강사/박기철(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7일(월) 오후 7:00 사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강사/이광수(사진비평가, 부산외대 교수)
24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스크리닝 '시네마 언노운:보이지 않는 영화들'_영아일랜드(2015, 25min), 대영약국(2021, 9min)
• 강사/김종환(감독), 김영광(평론가)
27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해설이 있는 해비메탈 공연
리겔밴드와 떠나는 락 기행 2024

일 시 |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00
바이널언더그라운드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리겔밴드 앨범 포함)
문 의 | 문화유목집단동행 010-2026-8280



해비메탈을 기본으로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접목을 시도해온 리겔밴드와 떠나는 락 기행 2024. 리드보컬 이재준, 드럼 임성기, 기타 정봉균, 베이스 기타 윤석진으로 구성된 리겔밴드는 2004년 결성된 후 지난 20여년간 매년 단독 공연과 전인권 밴드 부산콘서트 오프닝 밴드 출연, 신해철 MEMORIAL CONCERT BUSAN 출연, 리겔밴드 1집 '하루' 발매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특히 부산지역의 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도시 콘서트'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 돕기 'Rock 'N'Roll Doctor in Busan', 세월호 3주기 유가족돕기 자선공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리겔밴드만의 목소리를 내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밴드명인 '리겔'은 리온 별자리 중에서 7번째로 밝은 별로, 이 사회에 밝은 희망과 메시지를 리겔의 음악으로 전하고자 붙인 이름이다.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1만원(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움여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5월부터 7월까지 1분기 강좌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초록의 계절 6월을 맞아 더욱 새롭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클래식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후기낭만주의와 현대 관현악을, 금요일에는 벨칸토 오페라 특집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 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 (벨칸토 특집)/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7~8일),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14~15일), 벨리니 '청교도'(21~22일),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28~29일) 콘서트/브루크너 교향곡 3번(3일, 8일), 클라라 슈만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 그라드'(10일, 15일),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17일, 21일), 말러 교향곡 제6번(24일, 28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호국의 달 특집 '전쟁' 주제 클래식음악_베토벤 '웰링턴의 승리' 외, 드보르작 '바이올린협주곡' 슈베르트 '물방앗간의 아가씨' 연가곡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국민주익음악 특집 : 파리음악기행-생상스 '오르간 교향곡', 드뷔시 '달빛' 베토벤 '삼중 협주곡', 창작 한국가곡 '잔향, 마중' 외 오페라감상실 '비제 카르멘' 전막감상 등

제19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꽃, 자연' 주제-찾아가는 시낭송회

일 시 |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꽃마을 '여울문화원' 소극장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출연/신영지 시낭송가, 황주철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아나운서 부장)
- 초청 음악가/소프라노 권소라, 가수 장정화, 문구룡,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종진

정현철 초대개인전 날 영원히 기억할 '개'

일 시 | 6월 1일(토)-6월 29일(토)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010-4574-0660



반려동물과 함께 한 기쁨, 행복, 슬픔, 이별의 사연들을 공유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제작, 소장하기 위해 마련한 갤러리 한스의 반려동물 아트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나만의 반려견을 그린 정현철 작가의 작품과 반려견의 추억사진, 사연 등을 함께 전시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 박민주 초대전 INNERLANDSCAPE_그하늘, 그바다

일 시 | 6월 3일(월)-6월 26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자연의 일부를 포착하여 우리 내면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을 형상화한 작가 박민주 초대전.

2024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본세 시즌2 웅장하게/교향곡의 세계

일 시 | 6월 26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문 의 | 상지건축 240-1529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남포동 신동아빌딩에 자리한 상지건축에서 열리는 2024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6월 강좌.

문화유목민 정두환 지휘자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두 번째 시즌으로, 베토벤, 슈베르트 등 거장들의 클래식,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 독주, 김광석과 양희은 등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까지 전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과 철학, 역사, 사회과학 전반을 다룬다.

특히 이번 강좌는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금정문화회관 2024 교육전시 고양이 비밀정원

일 시 | 4월 9일(화)-6월 16일(일) 금샘미술관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부산을 대표하는 젊은 시각 예술가 김성민, 박자현×오정남, 안주, 이정윤, 정다솔, 정세운, 사진작가 해랑이 참여하는 금정문화회관 교육전시 '고양이 비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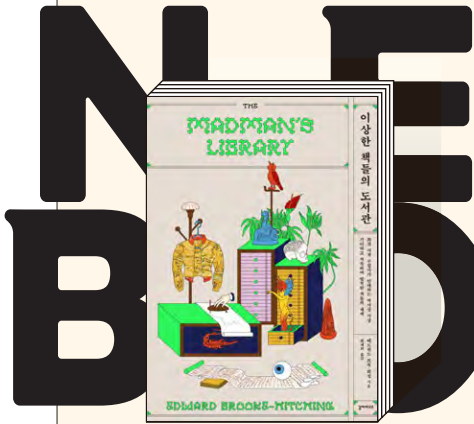
• 관람시간/오전 10:00~

오후 6:00(입장마감 오후 5:30)

2024년 특별기획전 수집가 傳 :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일 시 | 4월 26일(금)-7월 7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이광한 책들의 도서관

에드워드 브룩-히칭 지음 / 최세희 옮김
갈라파고스 / 3만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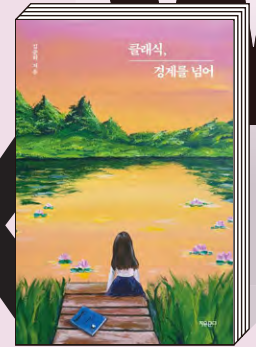
“사람의 삶과 피로 만든 책, 상처를 입히는 책, 거짓말만 늘어놓는 책, 비속어를 가득 모아둔 사전, 급할 때 번기로 쓸 수 있는 책,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책, 너무 작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책, 너무 커서 우주를 파괴하고도 남은 책, 악마가 예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록, 악마를 소환하는 책, 유령이 쓴 책, 사기치고 벌주고 조롱하고 복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 단지 누군가를 한 번 피식 있게 하려 제작된 책...” ‘책’이라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신기해 할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이다. 많은 책을 품었으니, 이 책 자체가 기이한 책들이 빼곡히 꽂힌 도서관이다. 에드워드 브룩-히칭은 영국의 작가 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다. 희귀 서적상 프랭클린 브룩-히칭의 아들이자, 서지학과 책 보존의 역사를 다룬 책 ‘책의 적들’을 쓴 인쇄업자 겸 서지학자 윌리엄 블레이드의 후손이다. 저자는 희귀 서적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고서와 친숙했다. 이 책을 펼치면 삽화와 사진에 먼저 폭 빠져게 된다. 여기에 저자가 풀어놓는 매력적인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선 것 같다.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김시현 외 지음 / 따비 / 2만원

한자어의 미묘한 차이와 그 복잡성을 고려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적 특성을 조명하고, 동서양 어휘 문화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는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어휘문화총서 3권. 이번 책은 버드나무, 복숭아, 벼, 해바라기, 장미, 연꽃, 백합, 할미꽃, 작약, 매실나무. 열 가지 식물을 통해 인간의 삶과 문화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나무 열매와 풀뿌리를 최초의 식량으로 했고, 그중 어떤 식물은 길들여 주곡으로 삼기도 했다. 식물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며 자라고, 인간과 자연이 맺은 관계는 식물의 이름에 담겨 있다. 한국인의 문화에서 ‘쌀’은 특징과 도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되어 불렸다. 한국인이 ‘벼’라고 부를 때는 한해살이풀이다. 벼가 맺은 열매를 ‘나락’이라 하고, 그 열매의 겉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을 때 ‘쌀’이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쌀을 주곡으로 먹지 않는 유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rice’이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에 이름의 무게도, 의미도 다른 것이다. 사물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클래식, 경계를 넘어

김준희 지음 / 자유문고 / 2만원

‘클래식’과 ‘붓다’의 조합? 한국에서 불교는 1700여 년을 함께해 오는 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에 내재화되어 있고, 클래식 서구명명 및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 그렇지 않다. 이 책은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클래식’과 ‘붓다’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붓다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설명한다. 붓다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깨달음, 교화, 열반에 이르는 삶의 여정과 가르침, 그리고 저자가 가려 뽑은 클래식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작곡가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이지만,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음악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은 서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적 색채를 걷어내면 클래식과 붓다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삶을 살찌우고, 감동을 주며, 보편성을 지향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삶과 그들의 대표작들에 담긴 의미와 정서, 그리고 붓다의 일생과 가르침, 이 둘이 엮어내는 환상적인 심포니를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2024 여름특강 개최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7월부터 두 달간 2024 문화예술아카데미 여름특강을 개최한다. 올해 열리는 여름특강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공연, 전시 연계강좌를 비롯하여 요즘 트렌드와 어울리는 테마 강좌, 그리고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국악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성찬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공연, 전시 연계 강좌에서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 제작한 오페라 ‘나비부인(8월 31일-9월 1일)’ 관람에 앞서 푸치니의 일생과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동아일보 문화 전문기자 유윤종의 ‘100년 후, 푸치니를 만나다’가 8월 24일 개설된다. 7월 2일부터 넉 달간 열리는 기획전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전시와 맞춰서는 국내 1세대 도슨트 김찬용의 전시 연계 강좌가 두차례 열린다. 서양미술사 400년을 총 망라하는 방대한 작품 수와 다양성으로 전시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전시로, 제대로 된 전시관람을 위한 감상 방법과 전시 관람 포인트에 대해 들을 수 있다.

테마 강좌 중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은 ‘꼭 알아야 할 와인 페어링’으로,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과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소개하며, 더불어 와인 시음도 함께 진행된다. ‘현명한 아트 컬렉터를 위한 아트테크 기술’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술품 투자와 관련하여 아트 컬렉팅의 원칙과 그림 고르는 안목, 그리고 전반적인 미술 시장을 집중 조명해보며, 증권사 PB 민현석과 함께 하는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초보 투자자를 위해 주식투자 방법론에서부터 기본적인 투자방법을 알려준다. 이 밖에 발레강사 조우리와 함께 하는 발레 초보자를 위한 ‘스트레칭 발레’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주목해 볼 만하다. 초등학생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뮤지컬’은 대중적이고 신나는 뮤



지컬 곡을 통해 발성, 연기, 안무를 배울 수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발레’는 발레 동작을 응용한 어린이 무용 수업으로, 기능적인 면보다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발레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신나는 판소리와 즐거운 타악기 강습으로 진행되는 가족 프로그램 ‘국악아 놀자’에서는 아이(6세~초등학생)와 가족(부모,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2024 여름특강은 5월 28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및 전화(051-607-6000)를 통해 수강신청 가능하며, 강좌 커리큘럼 및 강사 프로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4 문화예술아카데미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2024. 5. 28.(화) ~ 정원 마감 시

- 온라인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아카데미 → 수강신청
- 오프라인 접수/문의 051-607-6000
- 수강신청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강 및 대리 수강, 일일 수강 불가합니다.
 2. 강좌별 최소 정원 미달 시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구분	강의명	강사	기간	일시	회차	인원	수강료
공연연계	100년 후, 푸치니를 만나다 (오페라 '나비부인')	유윤종 (동아일보 기자)	8. 24.	토, 15:00 ~ 17:00	1	40	20,000
전시연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를 이해하기 위한 교양미술사1	김찬용 (도슨트)	7. 6.	토, 15:00 ~ 17:00	1	40	20,000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를 이해하기 위한 교양미술사2	김찬용 (도슨트)	8. 3.	토, 15:00 ~ 17:00	1	40	20,000
테마특강	현명한 아트 컬렉터를 위한 아트테크 기술	이지영 (플랫폼에이 대표)	7. 5. / 7. 12.	금, 14:00 ~ 16:00	2	40	40,000
	현명한 투자자	민현석 (대신증권 PB)	7.13. / 7. 20.	토, 14:00 ~ 16:00	2	40	40,000
	꼭 알아야 할 와인페어링	박경아 (Wein 대표)	8. 1. / 8. 8.	목, 19:00 ~ 21:00	2	40	70,000
	스트레칭 발레	조우리 (발레 강사)	7. 24. ~ 8. 14.	수, 10:30 ~ 12:10	4	12	60,000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발레	박소희 (발레 강사)	7. 29. ~ 8. 2.	월~금, 10:30 ~ 12:00	5	20	70,000
	어린이 뮤지컬	박지은 신하람 여지훈 (뮤지컬 강사)	7. 29. ~ 8. 2.	월~금, 14:00 ~ 15:30	5	30	70,000
가족 프로그램	국악아 놀자	곽현아 신하울 (국악 강사)	8. 10.	토, 10:30 ~ 12:00	1	20	15,000
			8. 17.	토, 10:30 ~ 12:00	1	20	15,000
			8. 24.	토, 10:30 ~ 12:00	1	20	15,000

* <국악아 놀자> 프로그램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6월~12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6-12월

June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야구왕을 꿈꾸는 최충우들 마린스 야구단의 이야기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6. 4(화)-9(일)
화-수 10:30am, 목 2:00pm, 금 10:30am, 7:30pm,
토 11:00am, 2:00pm, 일 11:00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만 48개월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중도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문화 | 대극장 2024.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주영 • 해설 | 심정옥
• 소프라노 | 우수연 • 테너 | 이동명
• 바리톤 | 안세범 • 연주 | KNN방송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오전 11시의 브람치 콘서트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문화 | 대극장 2024. 9. 27(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인혁 • 소프라노 | 박현진, 손주연
• 바리톤 | 이광근 • 첼로 | 홍승아 • 해설 | 손지현
• 연주 |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7세 이상 관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III & V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2024. 6. 29(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 지휘 & 협연 | 루돌프 부흐빈더
• 예술감독 | 다니엘 도즈
• 연주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 7세 이상 관람



모두가 하나되어 떠나는 판타지 모험!
뮤지컬 <달 사베트>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토끼석 60,000원 늑대석 40,000원
• 원작 | 백희나
※ 24개월 이상 관람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 23(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8세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여인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지휘 | 이병욱 • 재연출 | 김숙영
• 합창·연주 |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객석을 전율시키는 건반 위 철학의 힘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챔버홀 2024. 10. 17(목) 7:30pm
전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10월을 물들이는 낭만적 만남
첼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 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10. 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국내 투어
**압 판 초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 | 대극장 2024. 11. 2.(토) 5:00pm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음악의 힘으로 더욱 몰입하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문화 | 대극장 2024. 11. 1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연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볼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20.(금)-12. 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크리스마스 3:00pm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독보적 감성의 로이킴과 행복을 노래하는 소란의 So Romantic한 만남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 x 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뱀파이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창작 뮤지컬
뮤지컬 <배니싱>

시민 | 대극장 2024. 10. 19.(토) 2:00pm, 6:00pm
 R석 66,000원 S석 44,000원
 ※ 13세 이상 관람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연극 <이단자들>

시민 | 소극장 2024. 10. 25.(금) 7:30pm
 10. 26.(토)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10세 이상 관람



세익스피어의 작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시민 | 소극장 2024. 11. 2.(토) 2:00pm, 6:00pm
 11. 3.(일)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10세 이상 관람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시민 | 대극장 2024. 12. 6.(금) 7:30pm
 12. 7.(토)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11세 이상 관람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수준높은 실내악 공연
**스타즈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MEMBERSHIP GUID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 여파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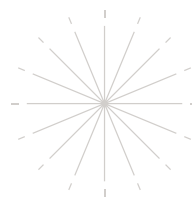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2024년 6월 6일(목) 오후 2:00,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9일(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1인 4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종료**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오페라 <나비부인> 종료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x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배니싱>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00,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젯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00, 오후 6:00
11월 3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카카오게임즈 게임OST페스티벌

2024년 11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더 드레서>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30, 12월 7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종료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종료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6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5. 24.(금)~6. 19.(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6. 25.(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5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4565 010-****-9855
010-****-1640 010-****-5502
010-****-4023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6.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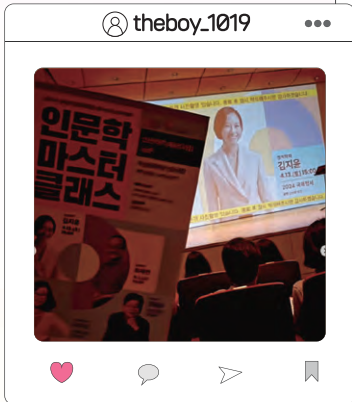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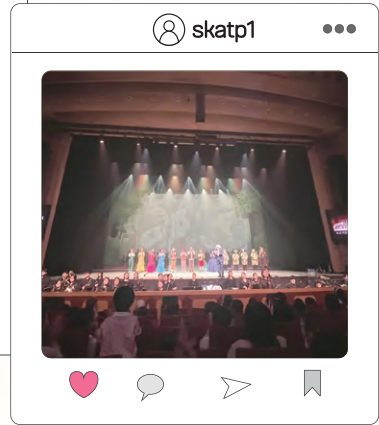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6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7월호



youandme0514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4. 6.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가리길에 서 있는

여자

작 | 김영화

연출 | 김염지

A WOMAN
AT A CROSSROADS

2024.

06.22.SAT

1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주관



제작

옆집우주

협력



티켓 전석

20,000won

관람연령

12세 이상



MESSA DA **베르디** '레퀴엠' REQUIEM *G. Verdi*

2024. **6.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나유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지휘 **이기선**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III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Su-mi
Hwang*

소프라노
황수미
피아노
안종도
듀오콘서트



*Jong-do
An*

2024.6.19 WED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6만원 | S 4만원 | A 2만원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Roy Kim

로이킴 Roy Kim

소란 SORAN

Soran

로이킴 & 소란

24. 7. 27. (토) 1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 티켓 |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관람연령 | 7세 이상 입장가능

| 문의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 (ARS 1번)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